

가온전선 (000500)



허민호
minho.hur@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신규

6개월
목표주가

360,000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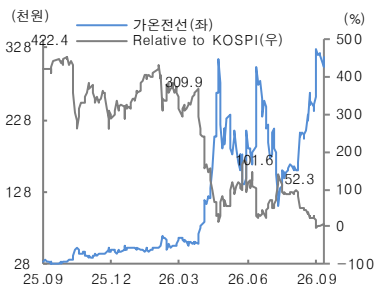
현재주가
(26.09.29)

314,500

유틸리티업종

KOSPI	6870.81
시가총액	9,365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4%
자본금(보통주)	14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27,000원 / 29,84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583억원
외국인지분율	2.95%
주요주주	LS전선 외 4인 81.7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54.2	65.0	417.8	946.2
상대수익률	52.3	101.6	309.9	422.4



	2025	2026F
주당배당금(DPS) (원)	56	1,633
수익률(%)	0.1	0.5
총주주환원 (십억원)	16.5	486.3
수익률(%)	0.1	0.5

주: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추정. 추정치는 12M FWD 기준

고밀도/고전력 AIDC의 전력공급, 냉각 솔루션 제공 업체로 변화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60,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 중장기 AIDC향 부스덕트, 중전압 특수케이블 매출 성장 지속
- 26년 매출액 3.54조원(+39% YoY) 영업이익 1,539억원(+94%) 전망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60,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LS전선 계열의 중저압 케이블 전문업체인 가온전선에 대해 목표주가 360,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목표주가는 2030년 예상 EPS 12,933원에 목표 PER 28배를 적용해 산출. 목표 PER은 글로벌 전력·통신선 업체의 2026년 평균 수준이며, 목표주가는 2027년 예상 EPS 기준 56배에 해당

최근 주가 급등으로 단기 차익 실현, 고밸류에이션 논란 존재할 수 있음. 그러나 부스덕트와 중저압 특수 케이블은 AI데이터센터의 랙당 40kW 이상의 고밀도/고전력화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전력공급 및 냉각 솔루션으로 부각 중. 수요 성장 초기 국면으로, LS전선 및 가온전선의 경쟁력 감안 시, 기대치 이상의 실적 고성장 가능성 존재. 단기 주가 하락 시 저가매수 기회로 이용을 추천

중장기 AIDC향 부스덕트, 중전압 특수케이블 매출 성장 지속

최근 미국 법인인 LSCUS(부스덕트 유통/설치, 중저압 특수케이블 생산)를 통해서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등으로부터 5.2조원 이상의 부스덕트 장기 공급 프레임 계약 체결, 3Q26부터 미국향 매출 본격화 기대. 2030년까지 부스덕트 매출은 2.2조원으로 성장, 영업이익률 10% 내외 유지 기대. LSCUS와 국내 별도법인 모두 미국 데이터센터향 중저압 특수 케이블(MV-105 등) 매출 확대 지속 예상. 국내에서도 반도체 및 AI데이터센터, 원전/가스발전, 재생에너지 증설 증설에 따른 중전압 지중/해저 케이블 수요 증가의 직접적 수혜 등 중장기적으로 고마진의 중저압 배전케이블 매출 확대, 수익성 개선 지속 기대

26년 매출액 3.54조원(+39% YoY) 영업이익 1,539억원(+94%) 전망

3Q26 매출액 9,866억원(+51.9%), 영업이익 469억원(+79.3%) 예상. 2026년 매출액 3.54조원(+39.0%, 이하 YoY), 영업이익 1,539억원(+94.3%), 영업이익률 4.3%(+1.2%p) 전망. 부스덕트 매출액 4,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8배로 증가 예상. LSCUS 영업이익은 800억원으로 연결 영업이익 52%를 차지할 전망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727	2,546	3,539	4,436	5,245
영업이익	45	79	154	264	362
세전순이익	36	63	137	247	343
총당기순이익	25	51	107	192	268
지배지분순이익	25	51	107	192	268
EPS	1,802	1,787	3,580	6,463	8,987
PER	16.7	25.6	58.2	32.3	23.2
BPS	32,250	16,824	21,730	27,297	34,224
PBR	0.9	2.7	14.5	11.5	9.2
ROE	6.5	11.0	18.9	26.4	29.2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가온전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ntents

I.	Valuation	4
II.	기업개요 및 투자포인트	8
III.	산업 분석	12
IV.	실적 전망	28

I . Valuation

부스덕트와 중저압 특수 케이블은 AI데이터센터가
랙당 40kW 이상의 고밀도/고전력화 되면서 효율적
전력공급 및 냉각 솔루션 부각

수요 성장 초기 국면으로, LS전선 및 가온전선의
경쟁력 감안 시, 기대치 이상의 실적 고성장 가능성
존재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60,000 원

LS전선 계열의 중저압 케이블 전문업체인 가온전선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350,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목
표주가는 2030년 예상 EPS 12,933원에 목표 PER 28배를 적
용해 산출했다. 목표 PER은 글로벌 전력·통신선 업체의 2026
년 평균 수준이다. 목표주가는 2027년 예상 EPS 기준 56배에
해당한다.

최근 주가 급등으로 12MF PER이 50배 이상에 이르는 등 동사
의 중장기 실적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적지않이 선반
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동안 니치마켓 시장의 저부가가
치 제품으로 알려져 있던 부스덕트와 중저압 특수 케이블 시장
은 현재 AI데이터센터가 랙당 40kW 이상으로 고밀도/고전력화
되면서 효율적 전력공급 및 냉각 솔루션으로서 채택이 본격화되
는 수요 성장 초기 국면인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신뢰성과 레퍼
런스를 요구하는 고전력의 산업 분야는 소수 기업의 시장 집중
도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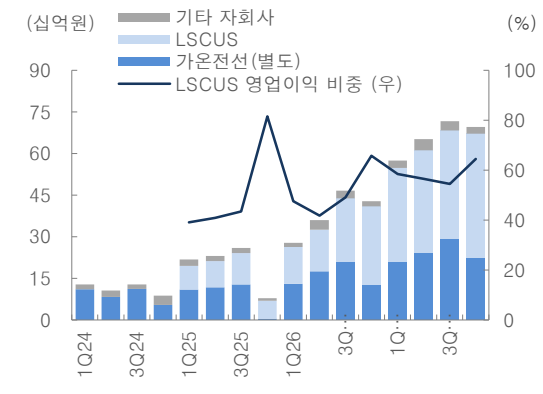
특수 제품은 제품 자체 마진이 높지만, 사업 단위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인해 높은 마진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특수 제품
이 대량 양산화될 경우, 기존 소수 기업은 높은 수익성을 향유하
게 되며, 대형 수요처로부터 경쟁력을 인정받아 새롭게 시장 진
출에 성공하는 업체는 시장 고성장, 빠른 점유율 상승, 마진 개
선 등의 속도가 초기에 기대했던 것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LS전선의 부스덕트와 가온전선의 중저압 케이블은 소규모 시장
에 국내에서 높은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의 인지도는 아직 낮은 편이다. 이제 글로벌 인지도 상승, 수출,
매출 성장이 시작되는 초기 국면이다. 향후 회사 경영계획과 시
장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실적 고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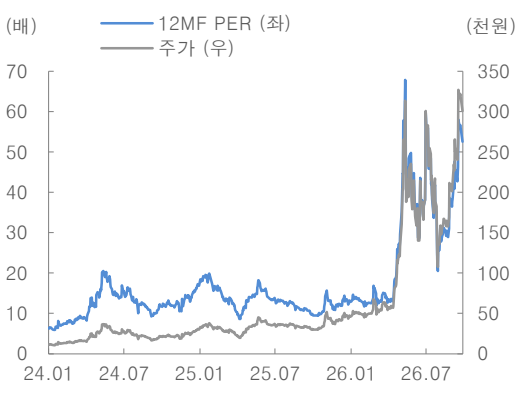
단기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고밸류에이션 부담 등에 따른
주가 조정 시 적극 매수를 추천한다. 해외 전선/통신업체인
NKT, Fuukawa Electric, KEI Industries 등도 2022년 이후 초
기 성장국면에서 12개월 선행 PER이 50~60배로 상승했으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2022년 이후 유럽 HVDC, 해저케이블
시장 고성장, 인도 전력케이블 시장 고성장, 2025년 이후 미
국 광통신 고시장 등과 함께 높은 시장 지위를 통한 실적 고성
장, 현재 기준 밸류에이션 하락했다. 가온전선도 해외 Peer와 유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가온전선의 법인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그림 2. 가온전선의 12MF PER, 주가 추이



자료: 회사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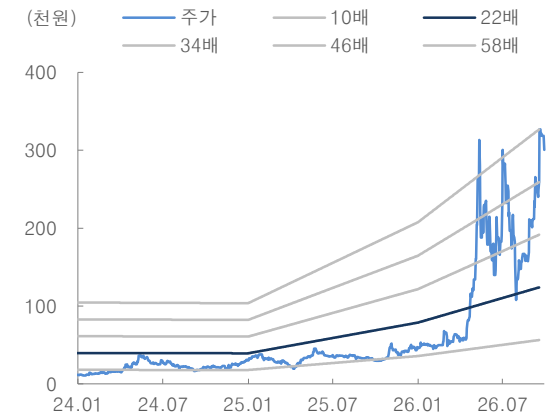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1. 가온전선의 Valuation

	2026F	2027F	2028F	2030F	비고
EPS (원)	3,580	6,463	8,987	12,933	
목표 PER (배)	101	56	40	28	2030년 예상 EPS 평균 x 목표 PER 28배
목표주가 (원)				360,000	(글로벌 전력/통신선 업체 평균 PER 28배)
현재주가 (원)				314,500	
상승여력 (%)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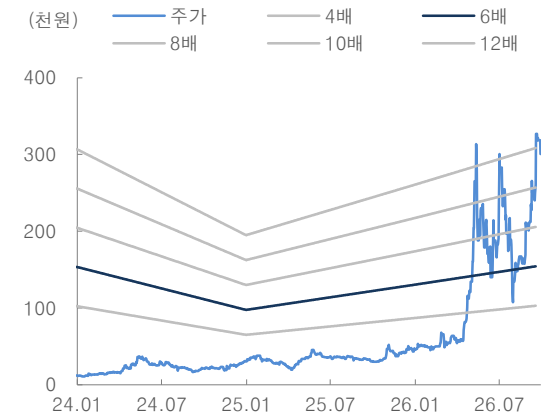
자료: FnGuide,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가온전선의 12MF PER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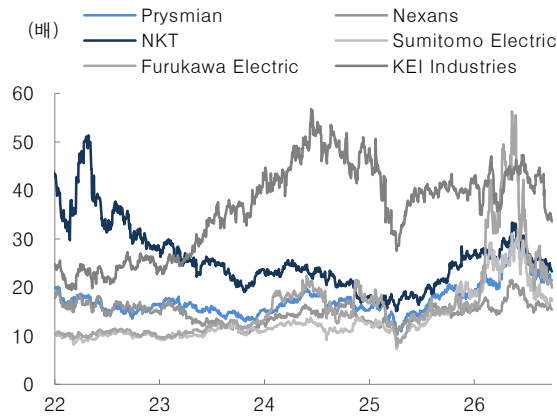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가온전선의 12MF PBR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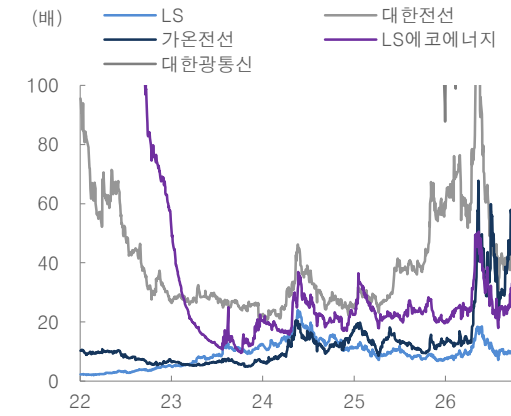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글로벌 전력/통신선 Peer의 12MF PE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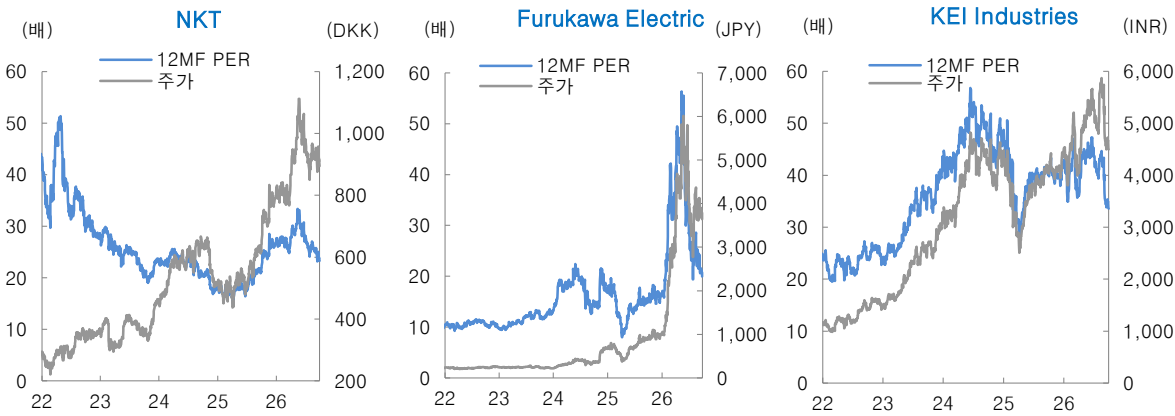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국내 전력/통신선 Peer의 12MF PER 추이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7. NKT, Furukawa Electric, KEI Industries의 12MF PER, 주가 추이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2. 국내외 전력선/통신선 Peer 의 Valuation 비교

		시가총액 (백만달러)	매출액 (백만달러)	영업이익 (백만달러)	순이익 (백만달러)	OPM (%)	ROE (%)	PER (배)	PBR (배)	EV/EBITDA (배)	EPS CAGR (%)
주LS	25A		23,469	775	199	3.3	5.6	37.3	1.7	10.2	
	26F	6,354	30,608	1,510	493	4.9	12.7	14.8	1.6	6.4	
	27F		32,693	1,696	587	5.2	13.5	12.3	1.4	5.4	
	28F		34,654	1,961	703	5.7	14.2	10.3	1.2	4.5	52.2
대한전선	25A		2,678	95	62	3.5	5.5	65.3	3.4	32.5	
	26F	4,035	3,239	169	56	5.2	4.5	75.1	3.2	21.4	
	27F		3,446	189	128	5.5	9.1	33.3	2.8	19.7	
	28F		3,887	240	164	6.2	10.4	25.9	2.5	15.6	38.4
일진전기	25A		1,506	111	77	7.4	19.1	37.1	6.6	22.7	
	26F	2,840	1,729	186	134	10.8	27.2	21.3	5.2	13.3	
	27F		1,857	204	152	11	24.8	18.7	4.2	11.6	
	28F		1,971	230	173	11.6	23	16.4	3.4	9.6	31.3
가온전선	25A		1875	58	38	3.1	11	176	18.7	94	
	26F	6,896	2606	113	79	4.3	18.9	87.8	14.5	52.9	
	27F		3267	195	142	6	26.4	48.7	11.5	32.3	
	28F		3862	267	197	6.9	29.2	35	9.2	24.3	73.3
Nexans SA (프랑스)	25A		6,948	500	401	7.2	18.5	17.3	3.1	8.5	
	26F	6,755	7,651	608	349	7.9	15.7	19.2	2.7	8.2	
	27F		8,313	731	441	8.8	16.6	15.6	2.4	6.8	
	28F		8,694	858	538	9.9	18.3	12.7	2.1	5.6	10.3
Phyrmian (이탈리아)	25A		22,388	2,005	1,447	9	22	28.5	5.4	16.2	
	26F	40,756	25,650	2,452	1,581	9.6	19.4	26	4.6	13.4	
	27F		28,501	3,055	2,026	10.7	20.4	20.4	3.8	10.8	
	28F		30,777	3,514	2,391	11.4	20.6	17.2	3.2	9.1	18.2
NKT (덴마크)	25A		4,061	293	301	7.2	13.1	25.1	3	14.4	
	26F	7,477	4,254	303	242	7.1	9.8	30.9	2.9	14.5	
	27F		4,963	415	326	8.4	11.8	23	2.6	10.9	
	28F		5,708	612	473	10.7	15.3	15.7	2.3	7.6	16.3
Sumitomo Electric (일본)	25A		31,771	2,501	2,068	7.9	13.2	20.8	2.6	11.9	
	26F	43,063	34,308	2,984	2,310	8.7	13.1	18.7	2.4	10.3	
	27F		36,527	3,556	2,635	9.7	13.6	16.4	2.2	8.8	
	28F		38,902	4,183	3,116	10.8	14.7	13.9	2	7.6	14.7
Furukawa Electric (일본)	25A		8,136	379	398	4.7	16.8	41.4	6.5	27.6	
	26F	16,460	9,355	732	637	7.8	22.2	25.8	5.2	18.1	
	27F		10,649	1,013	845	9.5	23.4	19.5	4.2	13.5	
	28F		11,935	1,300	1,072	10.9	23.9	15.3	3.3	10.7	39.1
KEI Industries (인도)	25A		1,172	113	90	9.6	15	50.6	6.8	36.4	
	26F	4,588	1,439	151	116	10.5	15.7	39.7	5.9	27.3	
	27F		1,734	184	140	10.6	16.3	32.7	5	22	
	28F		2,034	214	164	10.5	16.5	27.7	4.3	18.6	22.2
SWCC (일본)	25A		1,701	163	108	9.6	19.1	22.6	4.1	13	
	26F	2,442	2,042	213	142	10.4	21.9	17.3	3.5	10.1	
	27F		2,230	246	161	11	21.1	15.2	3	8.8	
	28F		2,367	275	181	11.6	20.2	13.5	2.7	7.7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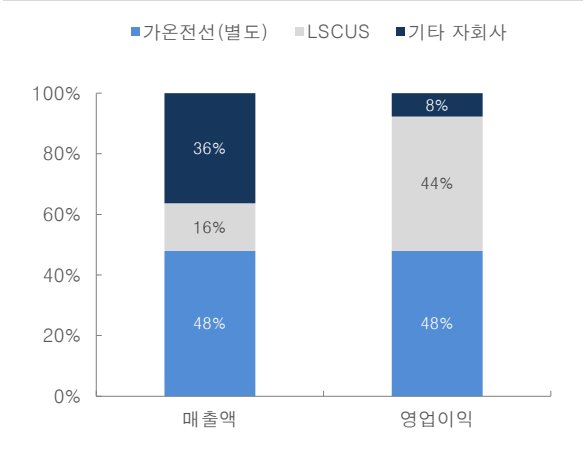
자료: FnGuide,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1H26 영업이익
640억원(+41.8%)
부스덕트미국 사업이
수익성 개선 견인

1H26 연결 매출액은 1.63조원(+27.3%, 이하 YoY), 영업이익은 640억원(+41.8%), 영업이익률은 3.9%(+0.4%p)을 기록했다. 법인별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은 연결조정 전 기준이다. 별도 법인은 매출액 8,813억원(비중 48%), 영업이익 306억원(비중 48%), LSCUS는 매출액 2,884억원(비중 16%), 영업이익 283억원(비중 44%)을 기록했다. LSCUS의 영업이익률은 9.8%로 별도법인 3.5%를 큰 폭으로 상회하며, 미국 고부가 배전 케이블 제품 생산 및 부스덕트 유통/판매의 매출 확대가 연결기준 수익성 개선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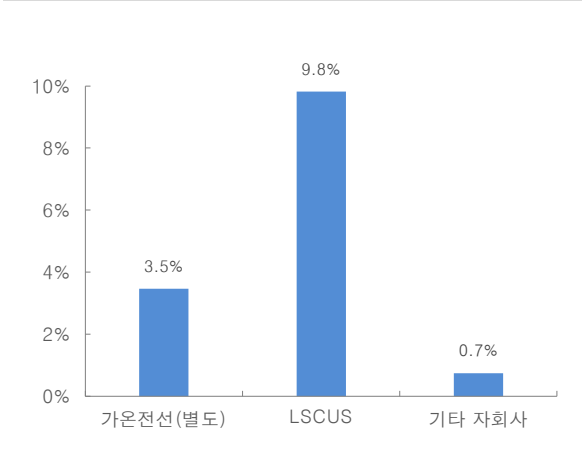
제품별로 살펴보면, LSCUS가 미국 내 유통/판매하고 있는 부스덕트의 1H26 연결조정 전 매출 비중은 6.2%지만 영업이익 비중은 28.9%에 달한다. 부스덕트 영업이익률은 16.1%로, 국내 법인들과 LSCUS가 생산하고 있는 전력케이블 영업이익률 2.9%를 크게 상회한다. 또한 LSCUS가 생산하고 있는 중전압 지중 절연케이블(MV-105, MV-URD 등)의 영업이익률은 7~9%로 국내 법인의 전력케이블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선로 케이블 2~3% 대비 높은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다. 최근 국내 법인에서도 고마진의 미국향 중전압 지중 절연 케이블, 저압 특수케이블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9. 가온전선의 법인별 매출액, 영업이익 비중 (1H26 연결조정 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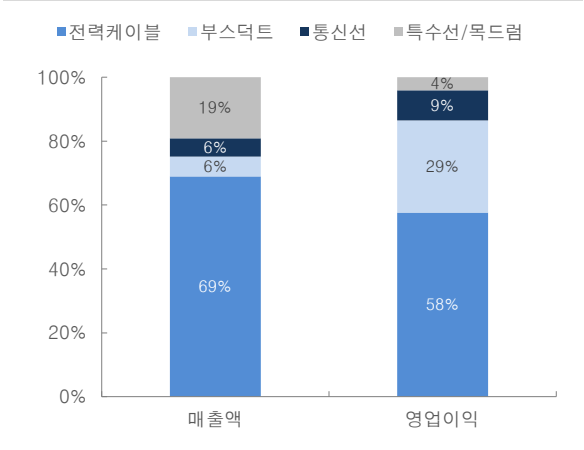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0. 가온전선의 법인별 영업이익률 (1H2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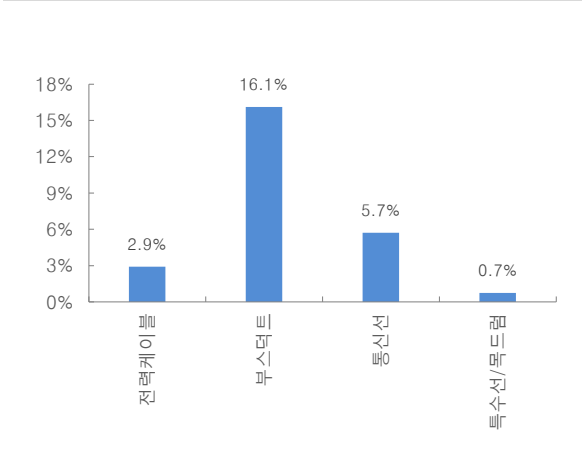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1. 가온전선의 사업부문별 매출액, 영업이익 비중 (1H26 연결조정 전 기준)



자료: 회사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2. 가온전선의 사업부문별 영업이익률 (1H26 기준)



자료: 회사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 2025 ~ 2030년 연평균 매출 22%, 영업이익 45% 성장

2030년 매출액 6.94조
원, 영업이익 5,129억
원, 영업이익률 7.4%
달성 전망

LSCUS는 3Q26부터
미국향 부스덕트 공급
本格화, 2030년 부스
덕트 매출 2.3조원, 영
업이익률 10%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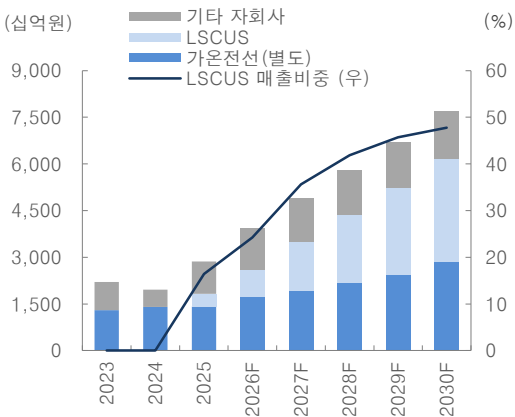
2030년 연결 매출액은 6.94조원, 영업이익은 5,129억원으로, 향후 5년간(2025 ~ 2030년) 연평균 각각 22.2%, 45.3% 성장할 전망이다. 영업이익률은 2025년 3.1%에서 2030년 7.4%로 상승할 전망이다. LSCUS는 매출액 3.31조원, 영업이익 3,224억원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각각 51.3%, 55.1% 성장을 예상한다. 국내 별도법인의 매출액은 2.85조원, 영업이익은 1,709억원으로 향후 5년간 연평균 각각 15.1%, 36.6% 성장이 기대된다.

2025년 11월 이후 LSCUS가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와 AI업체, 전기차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한 부스덕트 장기 공급 프레임계약과 예상 공급액을 합산하면 약 5.3조원에 이른다. 회사 측은 미공개분을 포함한 프레임계약의 예상 공급 규모를 6조원 이상으로 제시했다. 실제 발주와 매출 인식은 고객의 투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스덕트를 제조하는 LS전선은 국내 공장과 멕시코 공장 증설을 통해 2027년 생산능력을 기존 대비 3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멕시코 공장은 2026년 준공, 2027년 초 양산이 예정돼 있다. 가격 상승 등까지 감안하면, 매출액 기준 생산능력은 2025년 5,000억원에서 2027년 2조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 3Q26부터 미국향 부스덕트 공급 본격화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LSCUS의 부스덕트 매출은 2.3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AI데이터센터향으로 고마진의 중저압 배전케이블(MV-105 등) 공급 확대 등으로 2030년 배전케이블 매출은 1.01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향 부스덕트의 이익률은 LS전선의 제조부터 LSCUS의 유통/설치까지 20 ~ 30%로 추정된다. 빠른 납기, 높은 품질 신뢰성, 대규모 생산능력을 동시에 갖춘 공급사가 제한적인 데다 대량 공급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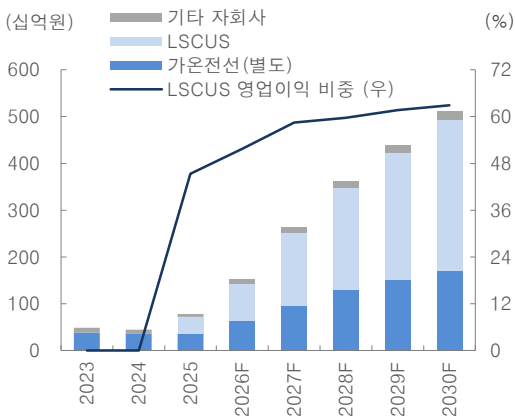
LSCUS는 부스덕트의 현지 설계 대응, 유통과 설치, 재고관리를 담당하며, 미국 현지에서 오랜 기간 산업용 배전케이블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현지에서의 부스덕트 시스템 설계 대응, 재고관리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고객 대응 역량과 현지 부가서비스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10% 수준의 부스덕트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3.가온전선의 법인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가온전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4.가온전선의 법인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가온전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3. LSCUS의 미국향 부스덕트 장기 공급 프레임 계약 현황

최초 발표일	고객 · 공급 대상	계약 · 예상 공급금액	공급기간
2025.11.05	글로벌 빅테크 AI 데이터센터	1조원 이상 전망(기존 5,000억원에서 확대)	3년
2026.05.18	다른 글로벌 빅테크 AI 데이터센터	최대 4조원 수준 전망	2030년까지, 5년
2026.06.09	생성형 AI 기업 O사 데이터센터	약 600억원	미공개
2026.06.26	글로벌 전기차 업체 AI 데이터센터	약 600억원	미공개
2026.08.20	미국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2,000억원	2027년까지
총 계약금액 · 예상 공급액 합산		약 5조 3,20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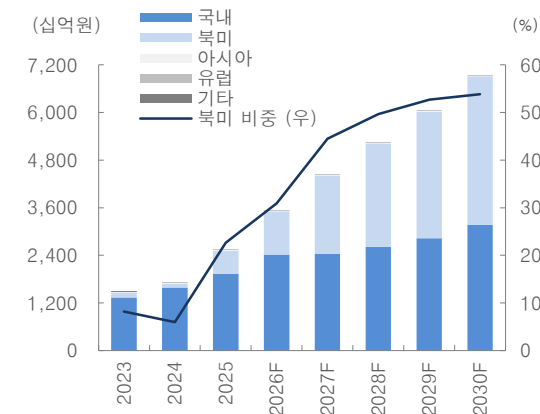
자료: 가온전선 언론보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향 수출과
국내 지중케이블 확대,
별도법인 수익성 개선

국내 별도법인도 2025년부터 미국향 중저압 케이블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등 제품에 대한 품질, 신뢰성은 검증받았다. 특히 동사의 경쟁력은 빠른 납기 대응 능력이다. 2026년 연결 기준 예상 북미 매출 비중은 30.9%로, LSCUS의 예상 매출 비중 24.2%를 6.7%p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국내 별도법인도 미국향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AI데이터센터, 첨단산업용 중저압 배전케이블(MV-105, 내화 케이블 등) 공급 확대, 태양광 집전망 및 유틸리티 배전망 지중화용 MV-URD의 매출 및 높은 수익성 유지 등 중장기적으로 고마진의 중저압 배전케이블 매출 확대,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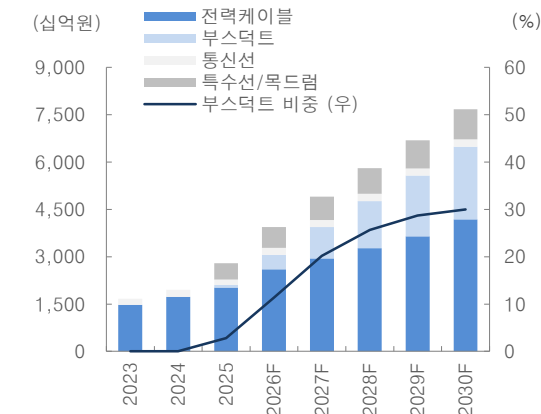
국내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반도체 및 AI데이터센터, 원전/가스발전, 재생에너지 증설이 중전압 지중/해저 케이블 수요를 늘릴 전망이다. 동사의 국내 중저압 케이블 유통시장 점유율은 회사 추정 약 40%이다. 반도체 및 AI데이터센터, 발전소 등은 제품의 높은 품질 및 신뢰성, 레퍼런스를 요구하는 만큼, 국내 중저압 케이블 수요 증가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모회사 LS전선의 기술이전 등을 통한 해상풍력 내부망용 중전압 해저케이블 진출도 검토 중인 점도 긍정적이다.

그림 15.가온전선의 지역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가온전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6.가온전선의 제품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가온전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III. 산업 분석

1. 부스덕트: AIDC의 고밀도 저압 전력 분배와 냉각 공간 확보 솔루션

AI 랙 고밀도/고전력
화로 대용량 전력 공
급과 냉각 인프라 수
요 확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시설 신설과 랙당 전력 상승이 맞물리며 확대되고 있다. 1) 기존 데이터센터의 랙당 전력은 대체로 5~20kW였지만, GB200·GB300 계열의 고성능 AI 시스템에서는 120~140kW급 설계가 등장하고 있다. 2) 10kW급 랙과 비교하면 같은 랙 한 대에 필요한 전력이 12~14배 증가한다. 3) 랙 100대의 전력을 합산하면 10kW급은 1MW, 40kW급은 4MW, 120~140kW급은 12~14MW이며, 냉각 등 부대설비 전력은 별도이다. 4) 차세대 시스템은 랙당 1MW 이상을 지원하는 설계가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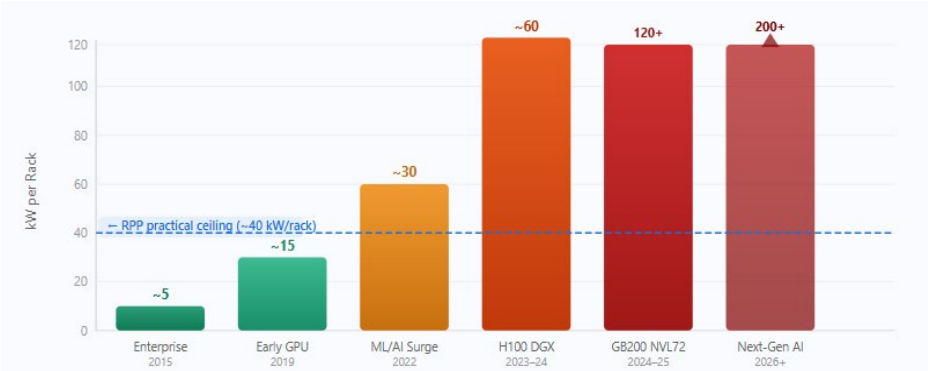
1MW는 1,000kW로, 10kW급 랙 대비 100배의 전력을 한 랙에 공급하는 규모이다. 고밀도화는 여러 AI 반도체를 가까이 연결해 학습과 추론의 처리 속도를 높이려는 요구에서 비롯된다. 전력 소비가 좁은 공간에 집중될수록 전원장치, 배선과 냉각설비도 함께 고도화해야 한다. 이에 데이터센터의 수용 능력은 설치 가능한 랙 수와 함께 랙당 전력 공급 및 열 처리 능력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대전류 배전과
공간 제약에 대응하는
부스덕트 도입 확대

과거의 부스덕트가 단순히 변압기에서 주 배전반으로 대용량의 전류를 전송하는 수동적인 매체로 인식되었다면, 최근의 부스덕트는 플러그 앤 플레이(Plug-and-play) 방식의 극대화된 모듈성, 협소한 공간에서의 체적 효율성, 그리고 센서를 통한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및 예측 유지보수 기능을 결합한 지능형 인프라의 중추로 진화하고 있다. 랙당 전력 소비량이 과거 8~10kW 수준에서 최신 AI GPU 클러스터 도입으로 40kW를 넘어 100kW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센터 환경에서는, 기존의 케이블 트레이 방식이 물리적 공간의 한계와 발열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오버헤드 방식의 부스덕트 시스템 채택이 급증하고 있다.

랙당 40kW를 넘는 고밀도 구간에서는 간선 전류와 배선 부담이 커져 부스덕트의 도입 필요성이 높아진다. 균형 3상, 480V, 역률 1 등의 조건에서 40kW 랙 10대는 400kW, 약 481A, 20대는 800kW, 약 962A를 요구한다. 전류가 증가하면, 도체를 두껍게 하거나 회선 수를 늘려야 한다. 고밀도 데이터센터는 서버뿐 아니라 전력을 전달하는 도체의 발열도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림 17. AI 데이터센터의 랙 전력 밀도 추세 (kW/랙)



자료: Arkhonorpower,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대전류 케이블의
발열과 절연 노화로
열 관리 중요성 확대

도체의 전력 손실은 전류의 제곱과 저항에 비례하므로, 대전류 배전에서는 열 관리가 중요하다. 케이블을 촘촘하게 묶으면, 1) 배선 공간과 연결 작업이 늘어나고, 2) 중앙부에 위치한 도체들은 주변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자체적인 열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지 못하고 '열 덩어리' 현상에 빠지게 된다. 도체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금속의 전기 저항이 증가하며, 늘어난 저항은 또다시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키는 열 폭주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절연체의 노화를 가속화하여 단락 사고의 위험성을 증대시킨다.

부스덕트는 대전류 공급, 방열과 공간 효율성, 모듈화 등의 특성을 통해 냉각 및 증설에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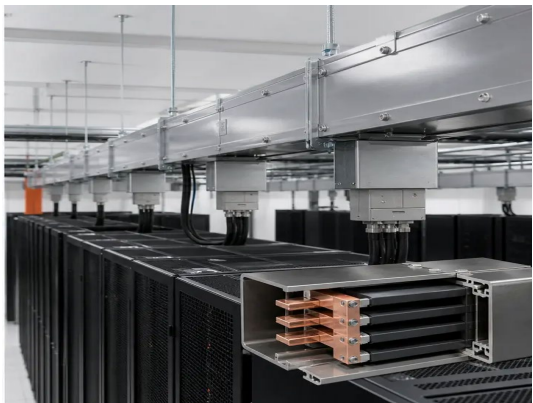
1) 부스덕트는 넓고 납작한 도체와 외함을 통해 열을 분산하며, 제품 구조와 설치 조건에 따라 케이블보다 방열과 공간 효율에서 유리할 수 있다. 2) 제시된 설치 사례에서는 전력 분배 라인을 천장(14 ft)에 설치함으로써 바닥 면적 점유를 없애고, 기존 케이블 기반 RPP(원격 전력분배 패널) 시스템이 차지하던 55~110 ft²의 공간을 수익 창출이 가능한 추가 서버 배치 용도로 전환할 수 있다. 3) 바닥에 전력 설비와 복잡한 배선이 위치하지 않아 기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고발열 장비가 밀집된 환경에서 필수적인 냉각 설비 공간 확보와 공조 효율 향상에 유리하다. 4) 해당 시스템은 바닥 천공 공사 없이 100A 단위 플러그인 탭을 유연하게 이동 및 결합할 수 있어, 장비 증설이나 부하 변경 시 물리적 제약과 공사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림 18. AIDC의 케이블 트레이 전력 분배



자료: Dramet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9. AIDC의 부스덕트(부스웨이) 전력 분배



자료: Dramet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0. AIDC의 RPP System (바닥 패널 방식)



자료: Starline Power,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1. AIDC의 Busway System (천장 배전 방식)



자료: Starline Power,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B 이중화로
장애 및 정비 중에도
전력 공급 유지. 이는
부스덕트 수요 확대의
또 다른 근거

AI 데이터센터에서는 전력 공급 중단에 따른 연산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부스덕트를 A·B 두 개의 독립 경로로 구성하는 이중화 설계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40kW 랙 30대에 필요한 1.2MW를 2N 구조로 공급하면, 각 경로가 1.2MW를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 구조는 한쪽 부스덕트의 고장이나 점검이 전체 서버의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춘다. 두 경로의 합산 설계용량은 2.4MW이지만 실제 IT 부하는 1.2MW로, 추가 용량은 장애와 유지보수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 능력이다. 이중화는 초기 설비비와 설치 공간을 늘리지만, 장시간 AI 학습의 중단과 서버 가동률 저하를 줄인다는 점에서 운영상 가치가 높다.

그림 22. AIDC의 부스덕트(부스웨이) 이중화



자료: Starline Power,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부스덕트는 초기 자재
비 부담은 크지만, 인
건비와 운영비 절감
등으로 총소유비용
(TCO)은 24% 절감
가능

부스덕트 시스템은 도체, 외함, 특수 접속 키트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야 하므로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대비 초기 자재 비용이 20~35% 크다. 그러나 Deltawye Electric에 따르면, 시스템의 10년 수명주기를 고려한 총소유비용(TCO, Total Cost of Ownership)은 사례 가정에 따라 약 24% 절감할 수 있다. 부스덕트는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섹션 단위로 볼트 체결만 하면 되므로 케이블 포설(케이블 설치 작업, 특히 케이블을 당겨 전선관이나 덕트 안으로 넣는 인입 작업 등) 대비 설치 시간을 40~60% 단축하며 인건비 및 시운전비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장비 증설이나 재배치 시 전체 회로를 재설치할 필요 없이 탭오프 유닛만 이동하면 되므로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해당 사례는 전력 비용의 2~3% 절감과 가동중지 시간 단축 등을 가정한다.

표4.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과 부스덕트 시스템의 총소유비용(TCO) 비교 (단위: 천\$)

	케이블	부스덕트	절감액	기간·조건
초기 설치비 소계	228	215	13	1,000A·500ft(152.4m) 설치 사례
자재비	125	165	(40)	초기, 천달러
설치 인건비	95	45	50	초기, 천달러
시험·시운전비	8	5	3	초기, 천달러
운영비 소계	122	50	72	10년 합계
유지관리비	25	10	15	연 2,500달러(적외선 스캔, 연결 상태 점검 등) / 1,000달러(육안 검사, 연결부 토크 점검 등)
설비 변경(연결단자 추가)	45	9	36	10년간 3회 가정
운영(전력, 가동중단 등) 손실	52	31	21	부하율 70%, 전력 비용의 2~3% 절감, 10년간 가동중단 20시간 단축 등
총소유비용(TCO)	350	265	85	24% 절감

자료: Deltawye Electr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IDC 100MW 기준
부스덕트 자재비
약 813억원 추정

부스덕트 시스템의 전류 크기, 공급전압 및 역률, 회선 수 및 회선당 설치 길이, 부하율(전류 사용률) 등의 설계에 따라 자재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부스덕트 시스템은 480V / 2,500A, 역률 0.95, A·B 이중화, 부하율 70% 등의 설계와 Deltawye Electric 부스덕트 자재비 1,000A, 152m 당 16.5만달러 등으로 단순 가정할 경우, AI 데이터센터의 100MW당 부스덕트 자재비는 약 6,000만달러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반올림 전 추정액을 환율 1,350 원/달러로 환산하면 약 813억원으로, 2026년 8월 언론에 보도된 LSCUS의 미국 AI 데이터 센터 250MW에 부스덕트 2,000억원(800억원/100MW) 규모 공급과 유사한 수준이다.

표5. 100MW 데이터센터의 부하율별 부스덕트 자재비 추정 (항목별 단위)

	정격 운전	부하율 80%	부하율 70%
공급 부하 (PUE는 미적용)		100MW	
공급 전압 / 정격전류		480V / 2,500A	
역률 / 이중화		0.95 / A·B 이중화	
장애 후 전류 사용률	100%	80%	70%
정상 시 A·B 각각의 전류 사용률	50%	40%	35%
장애 후 회선당 공급 전력	1,975MW	1,580MW	1,382MW
A·B 각각의 필요 회선 수	51 개	64 개	73 개
A+B 총 회선 수	102 개	128 개	146 개
회선당 설치 길이	152.4m	152.4m	152.4m
총 설치 길이	15,54km	19,51km	22,25km
회선당 자재비(천\$)	413(Deltawye Electric 부스덕트 1,000A의 165 천\$ x 2.5 배 가정)		
총자재비 (백만\$)	42	53	60
총자재비 (억원, 1,350 원/달러)	568	713	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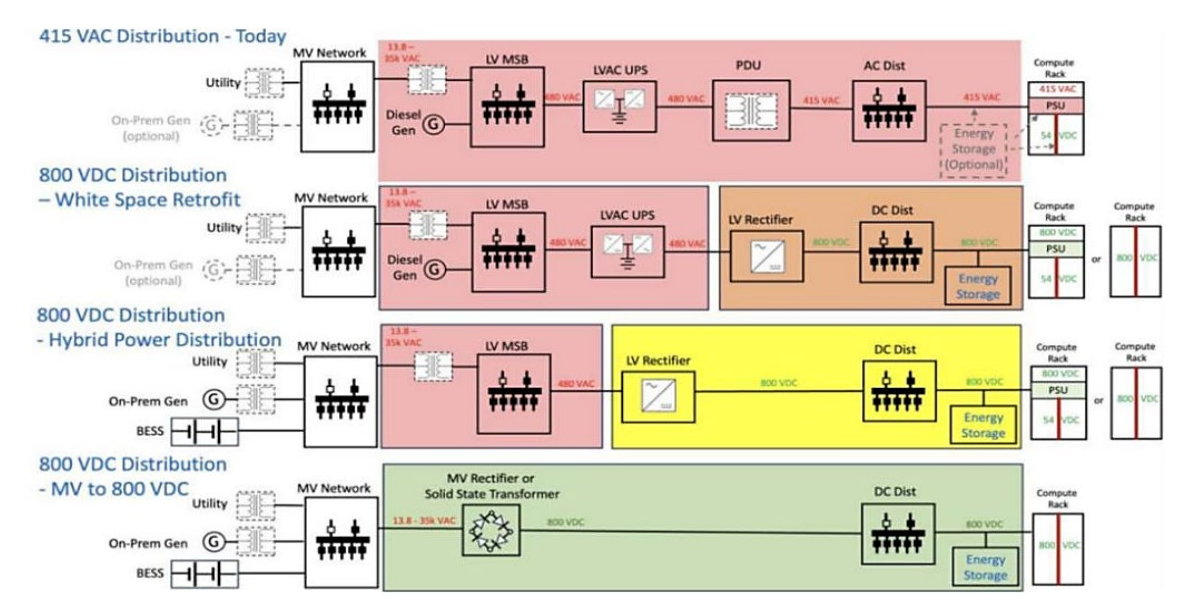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2,500A 제품은 더 많은 부하를 연결하거나 증설 여유 확보 가능

800V 직류 배전으로
직류용 부스덕트
수요 확대 전망

향후 1MW급 랙의 도입은 800V 직류 배전과 직류용 부스덕트 수요를 함께 확대할 전망이다. 800V 직류 배전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도체 수 감소 등을 통한 도체 손실 감소, UPS의 교류-직류, 직류-교류 변환 손실 축소 등 배전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120kW 랙 10 대의 합산 전력인 1.2MW를 전달할 때는 800V 직류 배전시스템에서도 1,500A의 대전류 전달이 필요하다. 부스덕트는 이러한 대전류를 여러 랙으로 전달하고, 분기하면서 배선 공간과 연결부 발열을 관리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엔비디아 GB200 NVL72 시스템과 같이 랙당 최대 120kW의 열을 처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다량의 직접 액체 냉각용 냉각수 분배 장치와 복잡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

다만, 초기에는 기존 교류 설비를 유지하고 랙 옆 전원장치에서 800V 직류로 변환하며, 이후 여러 랙이 중앙 변환설비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확대될 수 있다. 제품은 800V 직류 정격에 맞는 절연과 접속 구조를 갖추고, 직류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보호장치와 함께 구성해야 한다. 서버 가까이에서는 낮은 전압으로 다시 변환해야 하며, 전압을 높여도 서버가 소비하는 전력과 냉각 필요량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림 23. AI 데이터센터의 교류/직류 전압 아키텍처 변화



자료: Open Compute Projec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6. 480V 3상 교류, 800V 직류 배전시스템의 도체 손실 비교

	480V 3상 교류	800V 직류
공급 전력	1.2MW	1.2MW
전류 계산	$1,200,000 \div (\sqrt{3} \times 480)$	$1,200,000 \div 800$
도체에 흐르는 전류	약 1,443A	1,500A
전력 전달 도체 수	3개	2개
합산 도체 손실 계산	$3 \times 1,443^2 \times R$	$2 \times 1,500^2 \times R$
합산 도체 손실 근사값	약 6,250,000 × R	4,500,000 × R
도체 손실 상대값	100	72
교류 대비 도체 손실 감소율	기준	약 28%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균형 3상 교류, 역률 1, 동일한 도체 저항 R을 가정. 변환기 손실은 제외

미국 AI 데이터센터
증설 규모 감안 시,
부스덕트 시장은
추가 성장 여력 확대

Fortune Business Insights가 제시한 글로벌 부스덕트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138억달러이다. 해당 기관의 연평균 성장률 5.27%를 적용하면 2032년에는 약 198억달러로 추정된다. MarketsandMarkets는 데이터센터용 시장이 2025년 32억달러에서 2032년 81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두 시점의 수치로 계산한 연평균 성장률은 14.2%이다. 데이터센터용 시장의 성장 속도가 전체 시장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별 시장 정의와 예측 기준이 달라 규모를 직접 비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Bloomberg NEF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센터 설치 용량은 2032년 152GW, 2035년 194GW로 2025년 대비 각각 104GW, 146GW가 건설될 전망이다. 2025년 말 기준 개발 예정 용량은 221GW로, 건설 중 및 추진 확정 용량은 81.5GW, 데이터센터 건설 경험을 보유한 개발사의 초기단계 용량은 57GW로 추산된다. 이를 감안 시 신뢰성이 높은 용량은 총 138.5GW로 가정할 수 있다. 최근 미국 내 AI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이슈를 감안하더라도 2032년까지 104GW 신규 건설은 달성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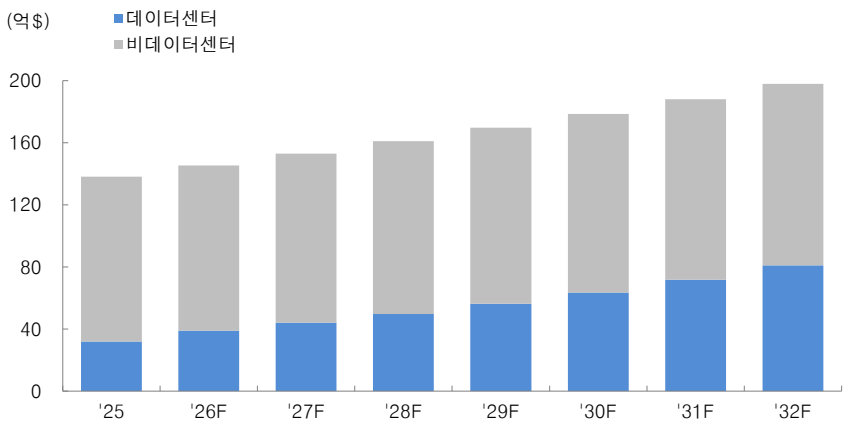
AI데이터센터 100MW 당 부스덕트 자재비는 6,000만달러, 2032년 한 해의 미국 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규모는 15~17GW 등으로 가정할 경우 신규 설비 전체에 앞서 제시한 부스덕트 설계를 적용한 2032년 미국 내 데이터센터용 부스덕트 시장 규모는 90~100억달러로 추정된다. 미국 이외 글로벌 다른 국가의 데이터센터 건설까지 감안하면 상기 기관의 글로벌 부스덕트 시장규모는 보수적이다.

부스덕트는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제조 공장과 상업용 건물에도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전력 부하, 설치 공간, 증설 및 유지보수 요구에 따라 달라지며, 모듈형 전력 분배와 공간 효율성이 주요 선택 요인이다.

납기 경쟁력과 증설로
LS전선의 부스덕트
점유율 확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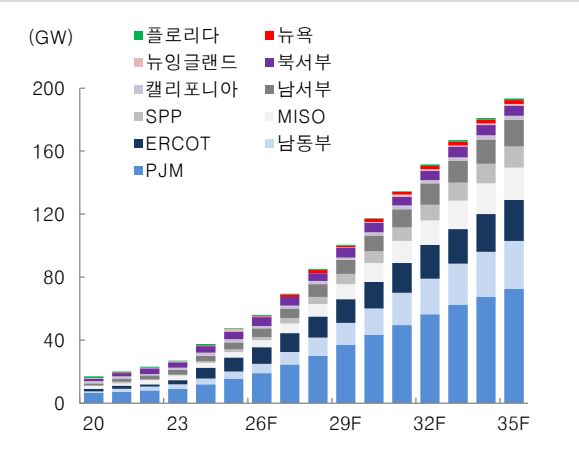
글로벌 부스덕트 시장에는 Schneider Electric, Siemens, ABB, Eaton, Legrand 등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LS전선은 높은 신뢰성 및 빠른 납기 준수 능력, 공격적 생산능력 증설 등을 바탕으로 최근 미국 AI데이터센터 및 전기차 제조업체와 장기 공급 프레임계약 등을 확보하며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4. 글로벌 부스덕트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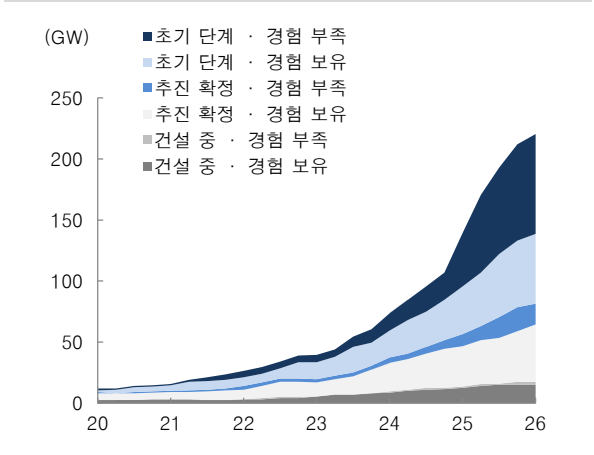
자료: Fortune Business Insights, Marketsandmarket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5. 미국의 지역별 데이터센터 설치 용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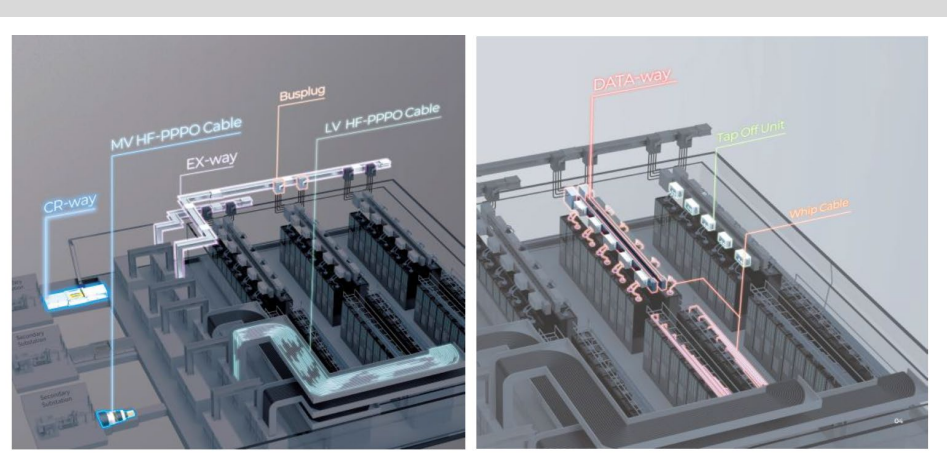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EF,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6. 미국의 데이터센터 개발 예정 용량 (사업 단계 및 개발사 경험별)



자료: Bloomberg NEF,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7. LS 전선의 AI 데이터센터용 부스덕트 시스템



자료: LS 전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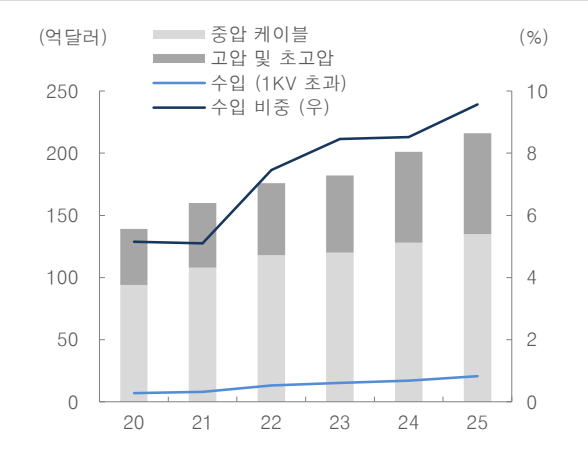
2. 미국 중전압 케이블 시장은 구조적 업황 개선 초기국면 진입

2026년 미국의
1kV 초과 전력케이블
순수입 증가

1kV 초과 케이블 관련 통계는 중전압 케이블 이외에 고압과 초고압 케이블을 포함하고 있지만, 미국 MV 시장의 수요 증가와 미국 내 공급 부담을 보여주는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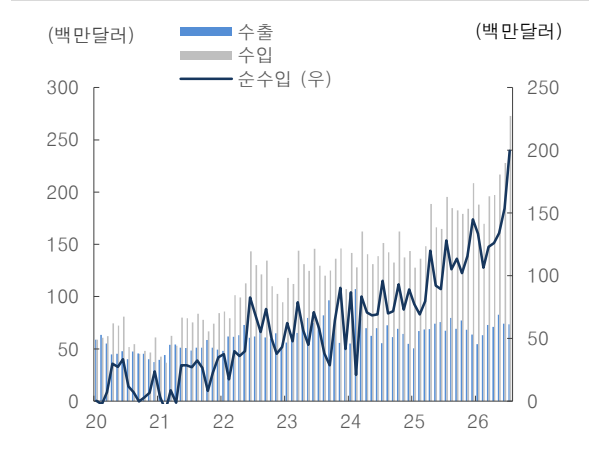
미국 중전압(MV, 1~69kV) 케이블 시장은 2025년부터 수요 확대, 2026년 이후 수익성 회복이 함께 진행되는 구조적 업황 개선 초기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1) 1kV 초과 전체 케이블과 커넥터 미부착 케이블의 월 순수입액은 202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26년 7월 각각 2억 달러, 1.7억달러를 웃도는 수준까지 확대돼, 미국 시장으로의 추가 공급 기회가 커지고 있다. 2) 미부착 케이블의 순수입량도 2024년 월평균 1.2만톤대에서 2026년 7월 2.2만톤 안팎까지 증가했다.

그림 28. 미국의 1kV 초과 전력 케이블 수요 및 수입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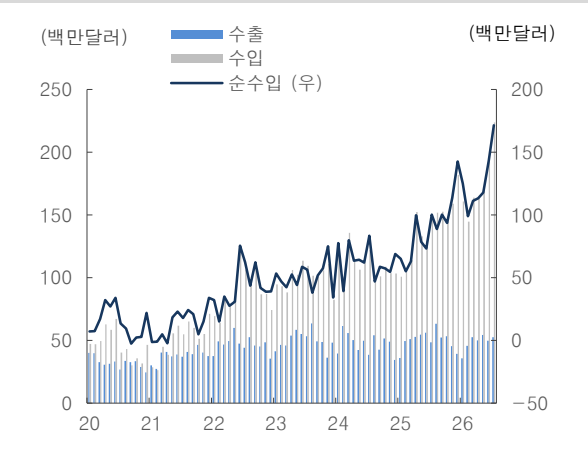
자료: USIT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중전압(MV)은 1kV ~ 69kV, 고압 및 초고압(HV/EHV)은 69kV 초과

그림 29. 미국의 1kV 초과 전력 케이블 수입, 수출, 순수입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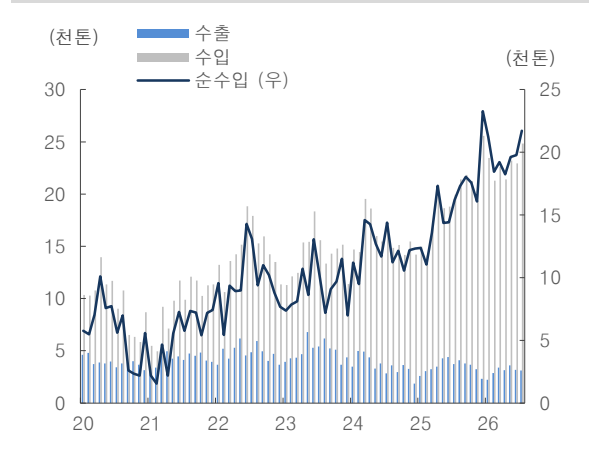
자료: USIT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0. 미국의 1kV 초과 커넥터 미부착 전력 케이블 수입, 수출, 순수입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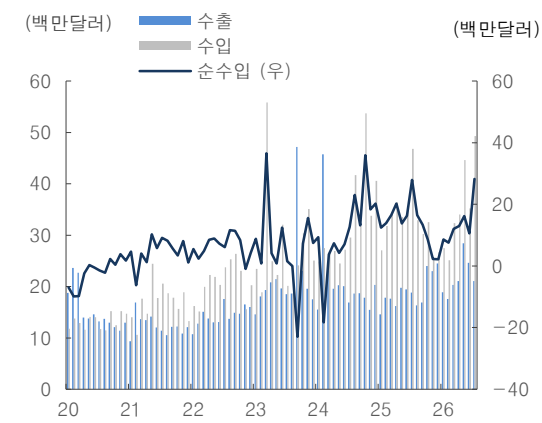
자료: USIT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1. 미국의 1kV 초과 커넥터 미부착 전력 케이블 수입, 수출, 순수입 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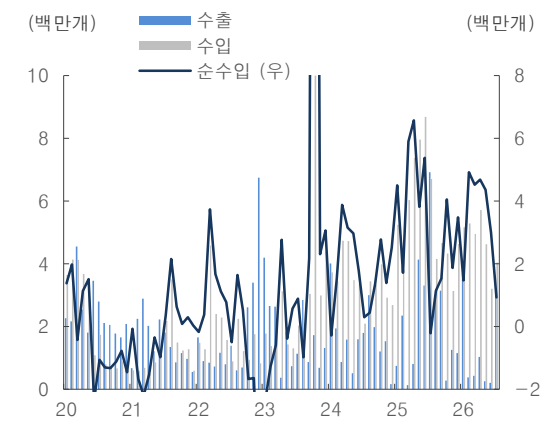
자료: USIT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2. 미국의 1kV 초과 커넥터 부착 전력 케이블 수입, 수출, 순수입 금액 추이



자료: USIT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3. 미국의 1kV 초과 커넥터 부착 전력 케이블 수입, 수출, 순수입 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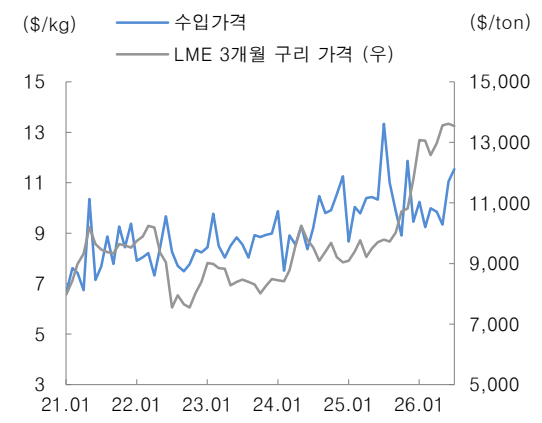
자료: USIT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H25 이후 구리, 알루미늄 가격 상승분이 2Q26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1kV 초과 케이블 가격에 반영

미국의 1kV 초과 케이블 수입가격은 범용 유통제품의 경우 2~3개월 전 구리, 알루미늄 가격을, 프로젝트 공급 제품의 경우 수주 당시 금속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재 프로젝트 공급용 중전압 케이블의 리드타임은 3~6개월, 고압/초고압의 경우 1~2년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속가격은 제품가격에 전가되고 있지만 그 시기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PPI는 수입가격에 3~6개월 후행하여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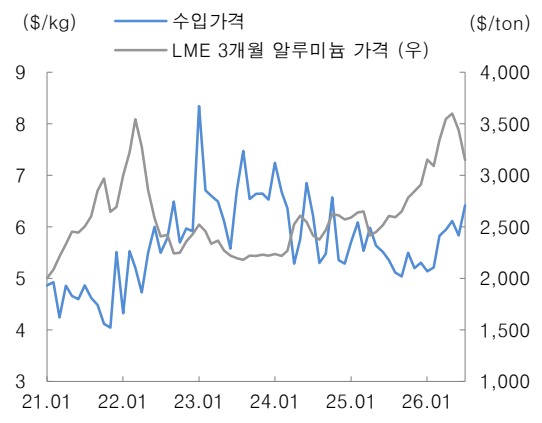
아래 차트와 같이 2025년 하반기 이후 구리, 알루미늄 가격 상승분이 2026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1kV 초과 케이블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금속가격 상승에 따른 케이블 가격 상승은 금속마진 증가에 따른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수익성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가동률 상승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타이트한 수급에 따른 가공마진 상승, 고부가가치 제품(특수 케이블, 지중 절연케이블 등) 판매 확대에 따른 제품믹스 개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림 34. 미국의 1kV 초과 구리 기반 커넥터 미부착 전력 케이블 가격, 구리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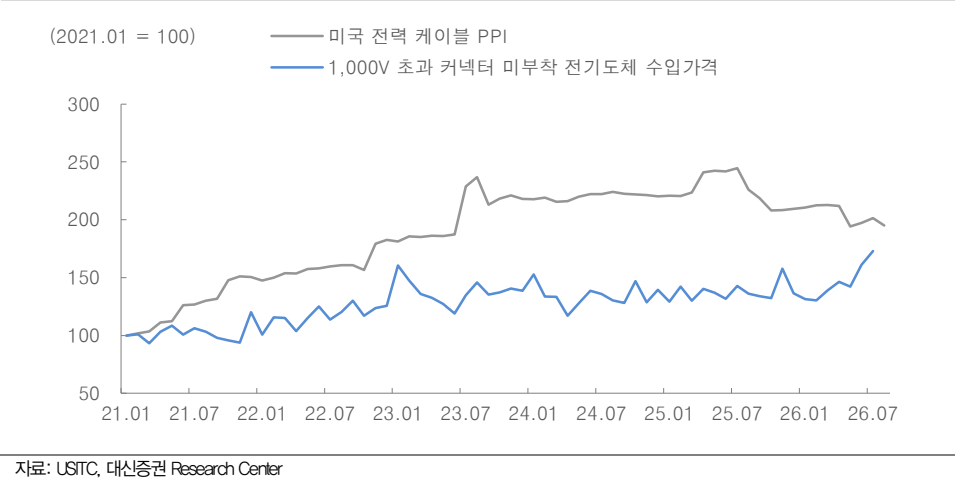
자료: USIT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5. 미국의 1kV 초과 알루미늄 등 기반 커넥터 미부착 전력 케이블 가격, 알루미늄 가격 추이



자료: USIT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6. 미국 전력케이블 PPI와 1kV 초과 커넥터 미부착 케이블 수입가격 추이



2Q26 글로벌 업체는 AIDC향 고부가 배전 케이블 매출 증가 등으로 수익성 개선

글로벌 전력/통신선 제조사(Prysmian, NKT)의 배전 케이블 사업과 미국 전력/통신선 유통사(WESCO)의 전력사업 마진은 2024~2025년 부진했으나, 2Q26부터 매출 증가 및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 금속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 이외에 가동률 상승, AI데이터센터향 고부가가치 배전케이블 매출 증가 효과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중전압 케이블 업황은 2Q26을 시작으로 구조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중전압 케이블 업황은 2Q26을 시작으로 구조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 AI 데이터센터 및 온사이트 발전 증설 급증과 함께 반도체, LNG 수출설비 등 고전력의 산업용 수전 및 배전 설비 증설은 고부가가치의 특수 중전압 케이블(MV-105 등) 수요를 견인할 전망이다. 2) 유틸리티 배전망의 지중화(MV-URD 등) 및 절연피복선 적용 확대 등도 안정적인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2025년 IRA 축소에 따른 태양광 발전의 집전망(MV-URD 등) 수요는 감소했지만, 클린에너지 니즈 강화 및 빠른 전력 공급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의 증설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4) ESS 및 가스발전 증설 급증은 태양광 발전 증가세 둔화를 상쇄하며 발전분야 중전압 케이블 수요 성장을 이끄는 또 다른 성장요소이다.

그림 37. Prysmian과 NKT(전력/통신선 제조업)의 배전사업 매출액, EBITDA 마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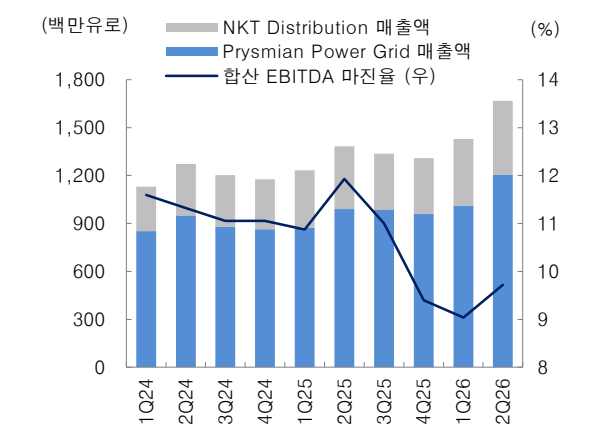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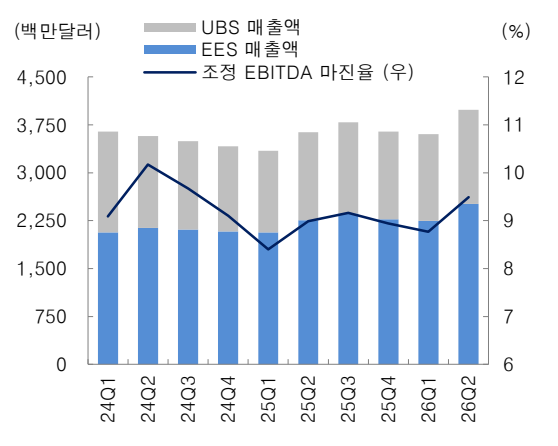


그림 38. WESCO(전력선 유통업)의 전력사업 매출액, 조정 EBITDA 마진을 추이



고객 인증과 납기 경쟁력을 갖춘 케이블 업체 수혜

미국 중전압 케이블은 2027년 LSCUS, Prysmian & Encore Wire, Southwire, Hellenic Cables 등 다수 기업의 생산능력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AI데이터센터의 고전력, 고밀도 전력 인프라 확대 등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의 구조적 수요 성장은 공급 물량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품의 고객 인증과 납기가 중요한 고신뢰성의 특수 중전압 케이블은 공급자 우위의 수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금은 그 초입 구간이라 판단된다.

LS Cable & System USA는 2026년 6월 발표에서 같은 해 10월 가동 예정인 신규 라인의 생산물량 대부분이 이미 예약됐다고 밝히, 수요가 증설 물량까지 선점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따라서 투자 우선순위는 미국 고객 인증과 추가 출하 여력을 확보한 업체이며, 이들은 수주 확대를 판매량 증가와 가동률 상승으로 연결해 이익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산 점유율 급락 (22년 28% → 26년 7월 6~7%) 등으로 저가 제품군에서도 가격 경쟁 완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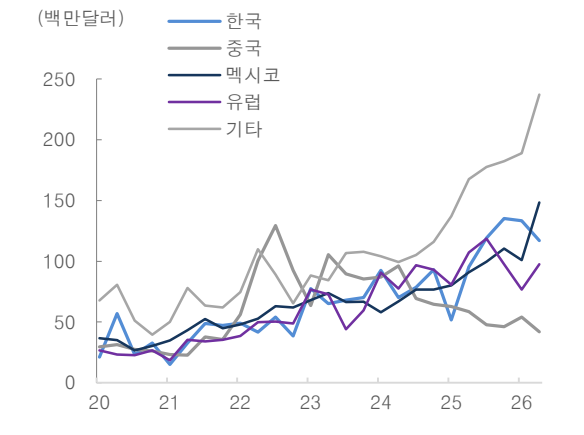
미국의 1kV 초과 커넥터 미부착 케이블 수입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2022년 28%에서 2026년 7월 6~7%까지 하락했다. 저가 제품군의 가격 경쟁 완화도 전력 케이블 업체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 전력 케이블 업체의 미국 수입 점유율은 18% 내외를 유지하며, 한국의 대미 수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7. 미국 내 중전압 케이블 공장 증설 계획

기업/공장	투자규모와 범위	구체적인 증설 내용	가동 계획
가온전선 · LSCUS / 노스캐롤라이나 Tarboro	5,000만 달러	MV 케이블용 COV 생산라인 2개 추가	1호 2026.10, 2호 2027.04
Prysmian · Encore Wire / 텍사스 McKinney	5년간 5억 달러의 캠퍼스 전체 투자에 포함 MV 단독 투자액은 미공개	65만ft ² 이상의 MV 케이블 신공장	2027년
Southwire / 앨라배마 Heflin	개별 투자액 미공개	기존 공장에 34만ft ² 추가, MV 생산설비 확충	2027년 말 설비 · 생산능력 가동
Hellenic Cables · Cenergy / 메릴랜드 Baltimore	초기 1단계 계획 약 2억 달러, 토지 취득 포함	MV · HV 육상 케이블 신공장, MV 단독 투자액 미공개	2026년 말 건설 완료, 2027년 하반기 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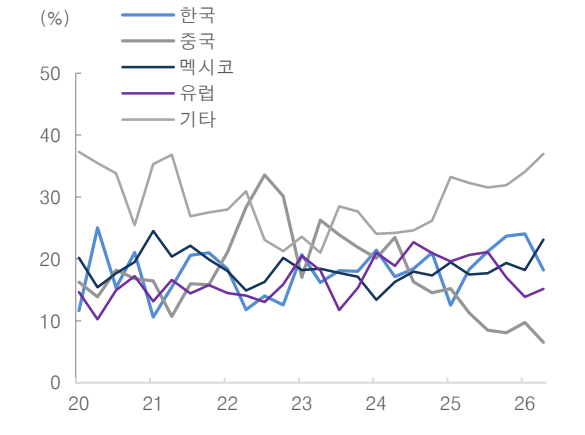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9. 미국의 1kV 초과 커넥터 미부착 전력케이블의 주요 국가별 수입금액 추이



자료: USIT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0. 미국의 1kV 초과 커넥터 미부착 전력케이블의 주요 국가별 수입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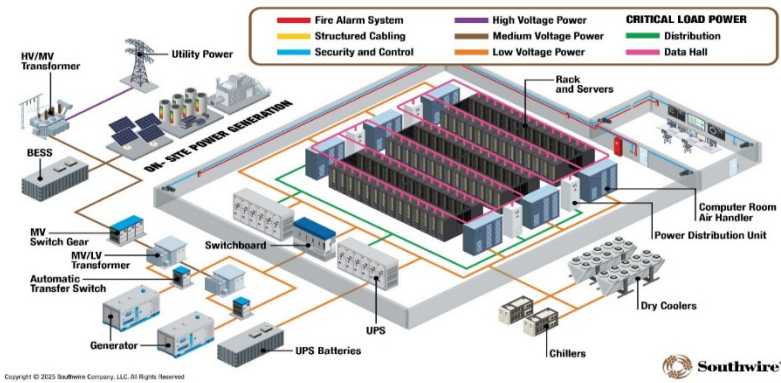
자료: USIT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3. MV-105 케이블: AIDC 캠퍼스 간선망의 고밀도/고전력 공급 솔루션

AIDC의 대형화와 전원 이중화, 온사이트 발전 등으로 중전압 배전케이블 수요 확대

AI 데이터센터의 대형화, 중전압 배전의 이중화, 온사이트 발전 확대는 중전압 배전케이블 수요를 늘릴 전망이다. 1) 대형 캠퍼스는 유틸리티 변전소에서 받은 전력을 캠퍼스 내 변전소에서 중전압으로 낮춘 뒤 여러 건물별 변압기에서 저압으로 낮춘다. 중전압 배전망은 그 사이를 연결한다. 건물 수와 부지가 확대될수록 변전소와 건물을 연결하는 케이블 회로와 배선 거리가 늘어난다. 2) 중전압 배전을 2N으로 구성하면 A·B 두 전원 경로가 각각 전체 필요 전력인 N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경로의 고장이나 정비 중에도 다른 경로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독립된 배전반과 케이블 경로를 확보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같은 서버 전력용량에서도 전원 이중화 수준이 높아지면 설치하는 배전설비와 케이블이 증가한다. 3) BESS, 연료전지, 소형 가스터빈, 가스엔진, 디젤발전기 등 온사이트 전원을 캠퍼스의 MV 배전망에 통합하면 발전·저장설비를 연결하는 추가 케이블 수요가 발생한다. 온사이트 발전이 늘어나면, 외부 전력망에서 구매하는 전력과 별개로 캠퍼스 내부 중전압 케이블 수요가 확대된다.

그림 41. AI 데이터센터의 배전 시스템 및 배전 케이블 모식도



자료: Southwire, 대산증권 Research Center

MV-105의 내열성, EPR의 유연성과 수트리 내성에 주목

특히 MV-105는 정상운전 허용 도체온도가 105℃인 중전압 케이블이다. 이 가운데 EPR(에틸렌 프로필렌 고무)을 절연재로 사용하는 제품은 높은 내열성과 함께 유연성, 수트리 내성 등의 장점을 갖춰 AI 데이터센터의 고밀도·고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솔루션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 내열성: 제한된 공간에서 수십 메가와트의 전력을 사용하는 AI 데이터센터에서는 정상운전 허용 도체온도가 90℃인 MV-90보다 높은 온도 정격을 갖춘 MV-105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대전류 전송에는 도체 단면적이나 회선 수를 늘려야 하지만, 지중 관로와 케이블 트레이의 공간 제약이 따른다. MV-105는 동일한 도체 단면적에서도 포설 조건에 따라 더 높은 허용전류를 확보할 수 있다. 대표 EPR 제품의 허용 도체온도는 비상 과부하 시 140℃, 단락 시 250℃이나, 제품별 정격과 허용시간, 보호장치 조건에 맞춘 설계가 필요하다.

2) 유연성 및 수트리 내성: AI 데이터센터의 지중 관로는 여러 설비를 연결하면서 복잡해지고 토양 수분에 노출될 수 있다. 수분 침투는 절연 열화와 단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EPR 절연재는 분자 구조의 특성상 유연성과 수트리 내성이 높다.

특수 케이블의
표준화 · 반복 공급,
규모의 경제 기대

MV-105 등의 특수 케이블은 고객 니즈에 맞춤 설계되어 생산되는 다품종 소량 생산 제품이다. 이에 따라 제품 자체 마진은 높지만, 꾸준한 대규모 공급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 전체로 보면, 지속적인 고수익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하이퍼스케일러가 공급업체와 제품을 표준화해 동일 제품을 반복 발주하면, 특수 케이블 제조사도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표8. MV URD와 MV-105 케이블 특성 및 유통 구조 비교

	MV URD 케이블 (전력망용)	MV-105 케이블 (산업용)
적용 표준	ICEA, AEC (일부 UL 인증 포함)	UL 1072 (Medium-Voltage Power Cables)
최대 연속 운전 온도	일반적으로 90° C (105° C 제품도 있음)	105°C (비상 시 140°C, 단락 시 250°C)
주력 도체 재질	경제성 확보를 위한 알루미늄	구리, 일부 알루미늄 적용
주력 절연 소재	TR-XLPE (Tree-Retardant XLPE) 또는 EPR	EPR, TR-XLPE 등 (제품별 상이)
금속 차폐(Shield)	동심 중성선	구리 테이프 겹침 구조
외장(Jacket)	LLDPE (토양 직매설 시 수분 차단 목적)	PVC, CPE (내유성 및 내화학성 목적)
주요 수요처	전력회사(Utility)의 지중 배전망 (주거 및 상업 단지)	산업 플랜트(석유화학, 제철소, 광산 등), 발전소 내부 전력망
생산 방식 (Scale)	수천 마일 단위의 단일 규격 연속 장기 생산	프로젝트 단위의 다품종 소량 맞춤 생산
유통 경로	제조사 → 전력회사 (직거래 또는 1 단계)	제조사 → 총판 → 지역 대리점 → 시공사
평균 유통 마진 (Markup)	최소화 (대량 계약에 따른 도매가 적용)	평균 20% (재고 유지 및 절단 서비스 명목, 최대 40%)

자료: 산업 자료, Southwir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대표 제품 비교, URD는 용도, MV-105는 온도 등급이며 적용 범위가 겹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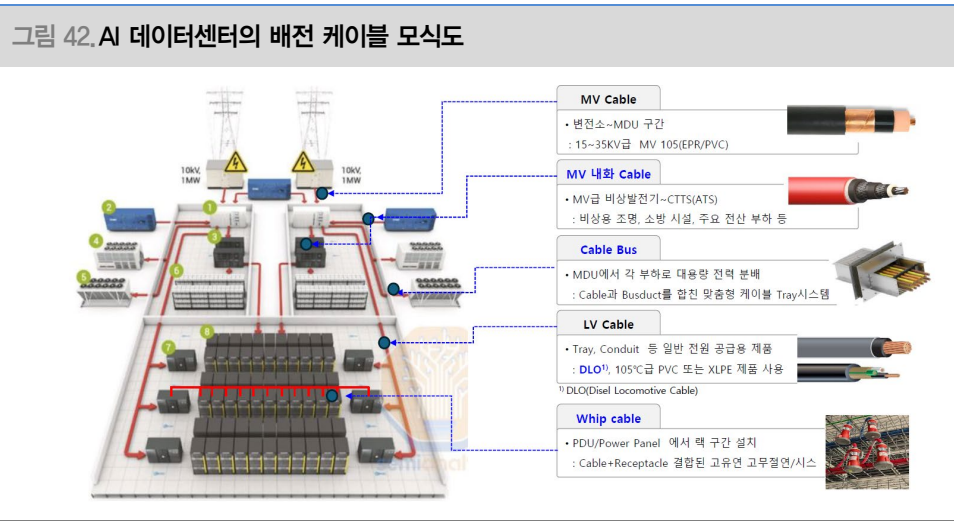
표9. 주요 케이블 절연재의 기술적 특성 비교

	XLPE (Cross-linked Polyethylene)	EPR (Ethylene Propylene Rubber)
주요 적용처	전력회사 지중 배전망(URD), 초고압(EHV) 송전망	산업 플랜트(MV-105), 원자력 발전소, 해양 재생에너지
유전율	23 (우수함, 유전손실이 적어 장거리 송전 유리)	28 ~ 30 (XLPE 대비 다소 높아 유전손실 존재)
유전장점	0.001 이하	0.005 내외
유연성	낮음 (상대적으로 뻣뻣하여 협소한 관로 포설 시 마찰 큼)	매우 높음 (고무 베이스로 케이블 트레이 및 굴곡 포설 용이)
수트리(Water Tree) 내성	첨가제를 넣은 TR-XLPE 적용 시 우수 (기본형은 수분에 취약)	소재 자체의 분자 구조적 특성으로 수분 침투 및 트리에 매우 강함
경제성 (시장 단가)	글로벌 표준화 및 대량 생산으로 원가 경쟁력 뛰어남	고무 배합 및 가공 공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단가 1.5배 이상 높음

자료: 산업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MV 내화 케이블과
설비별 연결용
특수 케이블 수요 확
대

또한 데이터센터 내부 배선이 늘어날수록 설치 구간에 적합한 화재 특성을 갖춘 제품의 중요
성도 높아진다. 화재 시 소방시설과 주요 전산 부하의 전력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MV 내화
케이블 등 특수 중전압 케이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저전압(LV) 케이블도 UPS·배
터리·분전반·랙의 연결 수요가 늘면서 유연한 제품과 조립형 접속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할 전
망이다. 데이터센터 내부에서는 저전압 간선, 전원·배터리 연결선, 랙 접속선이 배전 단계별로
적용된다. UPS·배터리 연결에는 2,000V 정격 DLO 제품이, 랙·캐비닛 연결에는 주문 사양으
로 조립한 Whip 케이블이 공급된다. 저전압 케이블은 대용량 전원을 개별 설비로 분배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발생한다.



자료: LS전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반도체·AIDC와
신규 전원 투자 확대,
중전압 지중케이블 수
혜

태양광·풍력 증설,
집전망·내부망용
지중·해저케이블 성
장

4. 국내 반도체/AIDC, 재생에너지 증설: 중전압 지중/해저케이블 수요 견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국민 정책토론회에서 2040년 목표 최대전력이 158.4GW(기준)~165.0GW(상향)로 재전망됐다. 이는 제11차 전기본의 2038년 여름철 목표 최대전력 수요 123.2GW 대비 35.2~41.8GW 증가한 것으로, 용인 및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반영된 결과다. AI 데이터센터 수요는 산업계가 총 20GW 이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을 고려해 10.8GW만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추가 수요 확대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에 따른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원전 및 가스발전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수요 증가와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를 보완할 신규 전원과 계통 투자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전원별 증설 규모는 제12차 전기본 확정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에서도 수백MW 이상의 고전력을 사용하는 반도체 공장과 AI데이터센터, 고전력을 생산하는 원전 및 가스발전의 계통연계는 154kV, 345kV로 연결되지만,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의 단지 내 배전망에는 주로 22.9kV가 적용된다. 특히 수트리 발생 억제 또는 난연 처리가 된 고마진의 지중 절연케이블이 사용된다.

또한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2025년 37GW에서 2030년까지 100GW, 2035년까지 163GW, 2040년까지 220GW로 증설안을 발표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중 사업용 태양광의 누적 목표는 87GW(2035년 122GW)이다. 이를 위해 2026~2030년 초대형 프로젝트 12GW와 4대 정책입지, 기타 유휴공간 44.2GW를 통해 태양광 56.2GW를 신규 보급할 계획이다. 2026년 9월 출범한 범부처 TF는 해당 계획의 사업 추진과 입지·인허가 문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면 태양광 집전망과 계통접속용 케이블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2035년까지 육상풍력은 12GW, 해상풍력은 25GW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와의 계통연계를 위한 국내 중장기 전력 케이블의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한국에서도 MW급 중대형 태양광 발전단지와 육상 풍력단지의 집전망은 22.9kV 지중케이블, 해상풍력(8MW 이상 터빈)의 내부망은 66kV 해저케이블로 연결되어 집전/승압 변전소로 전력을 모으므로, 이는 가공선로 케이블 대비 고마진의 중전압 지중/해저케이블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43. 12 차 전기본의 목표수요 재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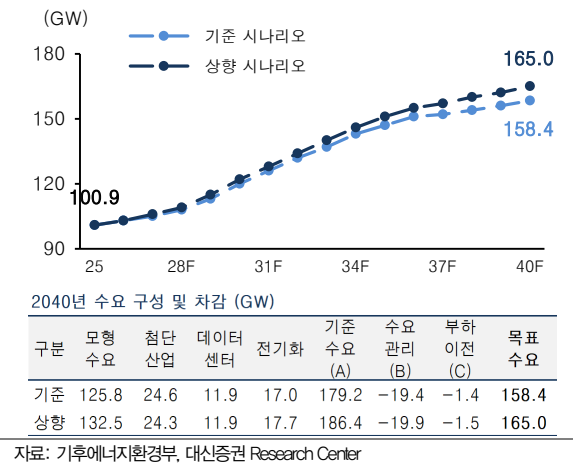


그림 44. 12 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증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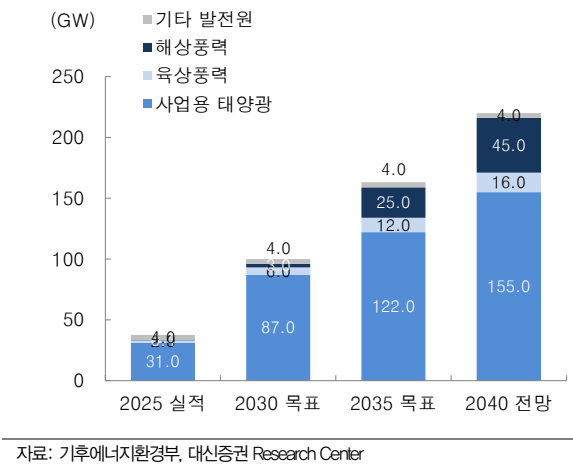


표10. 국내 원전/가스발전소,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의 전력망/전력케이블 구성 비교

시설 구분	계통 구분	공칭 전압 (kV)	포설 방식	도체 재질	절연재 재질	외피(외부) 재질	특화 기능
원자력 발전소	소내 안전계통	4.16	지중 (전력구/트레이)	Cu (전기용 연선)	EPR (에틸렌프로필렌고무)	무할로겐 난연 폴리올레핀 CSP(하이필론)	내환경검증(EQ), 내방사선 초고난연, 저독성, 무할로겐
	소내 비안전 중전압망	13.8			XLPE 또는 EPR	난연 폴리올레핀 / 난연 PVC	고난연, 저발연, 대용량 펌프 동력 전달
	발전기 승압변압기	22 ~ 24	육내 / 지상 트렌치	Al (알루미늄 모선)	공기 / 에폭시 지지물	알루미늄 금속 외함	초대형 전류 수송, 상간 단락 방지(완전 격리)
	계통연계 (외부 송전)	345, 765	가공 / 지중	Cu/ 강심알루미늄연 선	초고압 XLPE	알루미늄 차수층 + PE	대용량 초고압 송전 전력 손실 최소화
가스 (복합) 발전소	소내 중전압 동력망	6.6, 11	지중 (전력구/트렌치)	Cu (전기용 연선)	XLPE 또는 EPR	무할로겐 난연 폴리올레핀	고난연, 저독성(LSG), 내화, 내유성
	발전기 승압변압기	11 ~ 20	육내 / 지상 트렌치	Al (알루미늄 모선)	공기 / 에폭시 절연	알루미늄 금속 외함	대용량 통전 상간 절연 신뢰성
	계통연계 (외부 송전)	154, 345	지중 / 가공	Cu(연선) / ACSR	초고압 XLPE	알루미늄 차수층 + 난연 PE	대용량 초고압 지중 송전, 완전 방수
	외부 계통연계 (주 인입)	154, 345	지중 (전용 전력구/터널)	Cu(연동선)	초고압 고순도 XLPE	금속 차수층 + 난연 PE	100% 무정전 다화선(2~3중) 수전, 완전 차수
반도체 공장 (FAB)	구내 배전망 (사내변전실 FBT)	22.9	지중/육내 (공중구/트레이)	Cu (동심중성선 구조)	XLPE	무할로겐 난연 폴리올레핀	초고난연(화재 확산 방지), 저발연, 무할로겐 저독성 (클린룸 정밀장비 부식 차단)
	육내 저압 분배 (장비 공급)	0.6/1 (380V/480V)	육내 (천장/트레이 / 사프트)	Cu 또는 Al 도체	고내열 에폭시/ XLPE	금속제 외함 / 난연 폴리올레핀	대용량 전력 직결, 공간 효율 극대화, 난연
AI 데이터 센터	외부 계통연계 (주 인입)	154(초대형은 345, 중소형은 22.9)	지중 (전용 전력구 / 관로)	Cu (연동선)	초고압 XLPE	금속 차수층 + 난연/방수 PE	대용량 수전, 2 회선 무정전 루프
	구내 중전압망 (수전실 변전/UPS실)	22.9	지중/육내 (전력구/라이저)	Cu (동심중성선 구조)	XLPE	무할로겐 난연 폴리올레핀	난연성, 저발연, 무할로겐 저독성(서버 기판 부식 방지)
	육내 저압 분배 (UPS 서버 랙)	0.6/1 (380V/415V)	육내 (천장/이중바닥)	Cu 또는 Al 도체	고내열 에폭시 / XLPE	금속제 외함 / 난연 폴리올레핀	고밀도 전류 이송, 초저손실 방열, 화재 확산 방지
태양광 발전단지	모듈 어레이 인버터 (DC)	DC 1,500V	지상 노출 (모듈 하부 트레이)	주석도금 연동선	XLPO(가교 폴리올레핀)		DC 1500V 내압, 25년 수명 보존, 자외선(UV)/오존 저항성, 난연
	단지 내 집전망 (변압기 스위치기어)	22.9 AC	지중 (관로식/ 직매설 트렌치)	Al 또는 Cu (동심중성선)	TR-XLPE(수트리 억제형)	고밀도 PE (폴리에틸렌)	수트리 억제(침수 절연파괴 방지), 수밀성, Al 도체 적용 시 경계성 확보
	외부 계통연계	22.9(40MW 이하), 154(대규모)	지중/가공	Cu 또는 Al / ACSR	TR-XLPE 또는 XLPE	고밀도 PE / 난연 PE	지중 수밀성, 장거리 송전 손실 저감
육상풍력 발전단지	터빈 내부망 (발전기 패드변압기)	690V AC	육내 (터워 내부 트레이)	Cu (유연성 다심 연선)	EPR 또는 XLPE	특수 고무, 난연 폴리올레핀	타워 회전에 따른 비틀림(Torsion) 내성, 내진동, 난연
	단지 내 집전망 (터빈 간 집전변전소)	22.9 AC	지중 (관로도로변 트렌치 매설)	Al(주력) 또는 Cu	TR-XLPE(수트리 억제형)	고밀도 PE (폴리에틸렌)	수트리 억제, 산악 지중 환경 수분 차단, 인허가 충족(산림 훼손 방지)
	외부 계통연계	22.9(소규모) 154(대규모)	지중/가공	Cu / ACSR / Al	TR-XLPE 또는 XLPE	고밀도 PE / 알루미늄 차수	산악 장거리 송전, 환경 훼손 최소화
해상풍력 발전단지	단지 내부망 (터빈 간 해상변전소)	33(초기) 66(대용량 표준)	해저 (해저면 1~3m 매설)	Cu 또는 Al(수밀 압축 연선)	고내압 XLPE(또는 TR-XLPE)	납(Pb) 피복 + 아연도금 강선 외장(SWA) + PP 안/PE	해수 원벽 차단(3중 방수), 외력 충격 보호(돛/아구 방호), 광통신선 복합
	외부 송전망 (해상변전소 육상연계)	154, 220, 345 (또는 HVDC)	해저 육상 지중	Cu(초대형 수밀 압축 연선)	초고압 XLPE(또는 DC-XLPE)	납 피복 + 이중 아연도금 강선 외장 + PP 안/PE	초고압 대용량 해저 송전, 강한 조류 및 해저면 마찰 보호, 완전 차수

자료: 산업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IV. 실적 전망

2026년 매출액 3.54조원(+39% YoY), 영업이익 1,539억원(+94% YoY) 전망

3Q26 영업이익
469억원 전망
2026F 1,539억원
부스덕트가 성장 견인

2026년 3분기 매출액은 9,866억원(+51.9%, 이하 YoY), 영업이익은 469억원(+79.3%)을 전망한다. 영업이익률은 4.7%로 전년동기 대비 0.7%p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 3분기 이후 미국 법인 LSCUS의 AI 데이터센터향 부스덕트와 MV-105 케이블 매출액 증가 본격화(부스덕트 매출액: 3Q26 1,550억원 vs 3Q25 210억원), 2) 국내 법인의 미국향 MV(MV-105, MV-URD) 등 고마진의 제품 매출 증가, 3)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전력케이블 판가 상승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북미 매출 비중은 37%로 전년 동기(25%) 대비 12%p 상승이 예상된다. 전력부문 영업이익은 411억원(+81.1%)으로 전체 영업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법인별로는 국내 별도 법인 영업이익 209억원(+63.3%), LSCUS의 영업이익 230억원(+102.3%, 영업이익률 8.6%) 등이 예상된다.

2026년 연간 매출액은 3.54조원(+39.0%, 이하 YoY), 영업이익은 1,539억원(+94.3%), 영업이익률은 4.3%(+1.2%p)를 전망한다. 실적 성장의 핵심은 미국 AI 데이터센터향 부스덕트와 MV-105 케이블이다. 특히, 부스덕트 매출액은 4,500억원으로 전년(780억원) 대비 약 5.8배로 증가해 전체 매출액의 12.7%를 차지하지만, 영업이익은 480억원(영업이익률 10.7%)으로 전사 영업이익의 31%를 차지할 전망이다. 법인별로는 LSCUS의 매출액이 8,570억원(+105%), 영업이익이 800억원(+122%, 영업이익률 9.3%)으로 전사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52%)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 법인도 매출액 1.74조원(+23.1%), 영업이익 641억원(+78.5%)으로 영업이익률이 2.5%에서 3.7%로 개선될 전망이다.

표11. 가온전선의 법인별 영업실적 추이 및 전망

(십억원 %)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3Q26F	4Q26F	2024	2025	2026F	2027F	2028F	2029F	2030F
매출액	639	643	649	614	764	869	987	919	1,727	2,546	3,539	4,436	5,245	6,045	6,936
가온전선(별도)	365	354	363	330	406	475	467	390	1,405	1,412	1,738	1,931	2,184	2,456	2,853
LSCUS	104	107	112	95	128	160	269	300	0	418	857	1,582	2,197	2,762	3,311
기타 자회사	260	263	253	262	323	345	355	321	552	1,039	1,344	1,390	1,429	1,470	1,512
연결조정	-90	-81	-78	-73	-94	-111	-104	-91	-230	-322	-400	-466	-565	-644	-740
영업이익	22	23	26	8	28	36	47	43	45	79	154	264	362	439	513
가온전선(별도)	11	12	13	0	13	17	21	13	36	36	64	97	131	151	171
LSCUS	9	9	11	6	13	15	23	28	0	36	80	155	216	271	322
기타 자회사	2	2	2	1	2	3	3	2	9	7	10	12	14	16	18
연결조정	0	0	0	0	0	0	0	0	0	1	1	1	1	1	1
영업이익률	3.4	3.6	4.0	1.3	3.6	4.2	4.7	4.7	2.6	3.1	4.3	6.0	6.9	7.3	7.4
가온전선(별도)	3.0	3.3	3.5	0.1	3.2	3.7	4.5	3.2	2.6	2.5	3.7	5.0	6.0	6.1	6.0
LSCUS	8.2	8.9	10.2	6.8	10.3	9.4	8.6	9.4	-	8.6	9.3	9.8	9.8	9.8	9.7
기타 자회사	0.9	0.7	0.7	0.3	0.5	1.0	0.8	0.6	1.6	0.7	0.7	0.9	1.0	1.1	1.2
연결조정	(0.1)	(0.2)	(0.2)	(0.2)	(0.0)	(0.1)	(0.2)	(0.3)	(0.0)	(0.2)	(0.1)	(0.2)	(0.2)	(0.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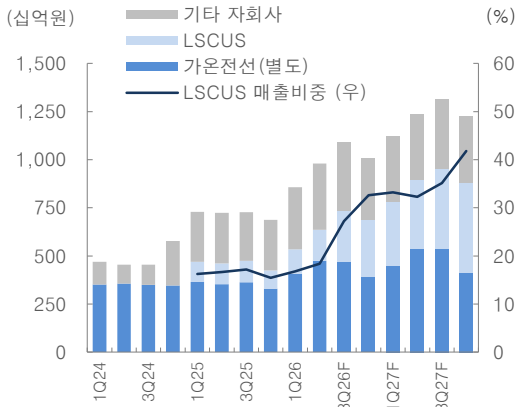
자료: 회사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표12. 가온전선의 제품별 영업실적 추이 및 전망

(십억원 %)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3Q26F	4Q26F	2024	2025	2026F	2027F	2028F	2029F	2030F
평균환율 (원/달러)	1,453	1,399	1,383	1,451	1,465	1,502	1,400	1,350	1,364	1,422	1,429	1,400	1,400	1,400	1,400
구리가격 (달러/톤)	9,457	9,502	9,878	11,151	12,899	13,392	13,974	13,958	9,264	9,997	13,556	14,058	14,212	14,368	14,525
국내 매출비중 (%)	76	74	74	80	77	77	62	60	92	76	68	55	50	47	46
북미 매출비중 (%)	22	25	25	19	22	23	37	39	6	23	31	44	50	53	54
매출액	639	643	649	614	764	869	987	919	1,727	2,546	3,539	4,436	5,245	6,045	6,936
전력	536	525	540	499	640	741	871	805	1,732	2,100	3,056	3,940	4,764	5,571	6,493
전력케이블	512	504	519	487	595	672	716	624	1,732	2,021	2,606	2,951	3,271	3,649	4,188
부스덕트	25	20	21	12	46	69	155	181	0	78	450	989	1,492	1,922	2,305
통신	48	49	45	41	50	55	61	56	225	182	222	226	228	231	234
특수케이블/목드럼	124	132	125	128	168	184	159	150	0	509	661	737	818	887	950
연결조정	-69	-63	-60	-54	-94	-111	-104	-91	-230	-245	-400	-466	-565	-644	-740
영업이익	21.9	23.2	26.1	7.9	27.8	36.1	46.9	43.0	45.1	79.1	153.8	264.5	362.2	439.1	512.9
전력	18.5	21.7	22.7	5.3	24.7	30.5	41.1	37.8	35.1	68.2	134.2	235.2	324.5	396.7	468.2
전력케이블	16.6	19.3	19.0	5.9	14.2	22.5	29.1	20.3	35.1	60.8	86.2	130.5	169.8	200.4	236.6
부스덕트	1.9	2.4	3.7	(0.6)	10.5	8.0	12.0	17.5	0.0	7.4	48.0	104.7	154.7	196.3	231.6
통신	2.5	0.7	2.7	2.5	2.5	3.5	3.7	3.6	9.9	8.4	13.3	15.3	16.6	16.8	17.1
특수케이블/목드럼	0.8	0.7	0.5	0.0	0.6	2.0	1.8	1.4	0.0	2.0	5.8	13.3	20.3	24.5	26.4
연결조정	0.1	0.2	0.2	0.2	0.0	0.1	0.2	0.2	0.1	0.7	0.5	0.7	0.9	1.0	1.2
금융손익	(5.2)	(1.0)	(5.9)	(5.8)	(6.8)	(6.6)	(1.8)	(4.1)	(7.5)	(17.9)	(19.4)	(21.2)	(22.2)	(22.4)	(22.3)
기타 영업외손익	0.8	(3.3)	1.7	3.0	1.3	5.6	0.9	(5.0)	(1.9)	2.2	2.8	3.5	3.1	3.3	3.2
지분법이익	0.0	(0.1)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세전이익	17.5	18.9	21.9	5.2	22.3	35.0	46.0	33.9	35.6	63.5	137.3	246.7	343.1	420.0	493.7
순이익	15.3	14.3	18.7	3.1	19.7	22.9	35.9	28.2	25.4	51.4	106.6	192.5	267.6	327.6	385.1
차별지분 순이익	15.3	14.3	18.7	3.1	19.7	22.9	35.9	28.2	25.4	51.4	106.6	192.5	267.6	327.6	385.1
영업이익률 (%)	3.4	3.6	4.0	1.3	3.6	4.2	4.7	4.7	2.6	3.1	4.3	6.0	6.9	7.3	7.4
전력	3.4	4.1	4.2	1.1	3.9	4.1	4.7	4.7	2.0	3.2	4.4	6.0	6.8	7.1	7.2
전력케이블	3.2	3.8	3.7	1.2	2.4	3.4	4.1	3.3	2.0	3.0	3.3	4.4	5.2	5.5	5.6
부스덕트	7.7	11.8	17.8	(4.7)	23.0	11.6	7.8	9.7	-	9.5	10.7	10.6	10.4	10.2	10.0
통신	5.3	1.4	6.0	6.2	5.0	6.3	6.0	6.4	4.4	4.6	6.0	6.8	7.3	7.3	7.3
특수케이블/기타	0.6	0.5	0.4	0.0	0.4	1.1	1.1	0.9	-	0.4	0.9	1.8	2.5	2.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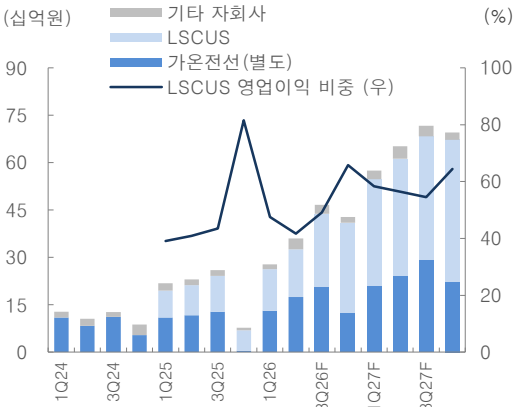
자료: 가온전선, FI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5.가온전선의 법인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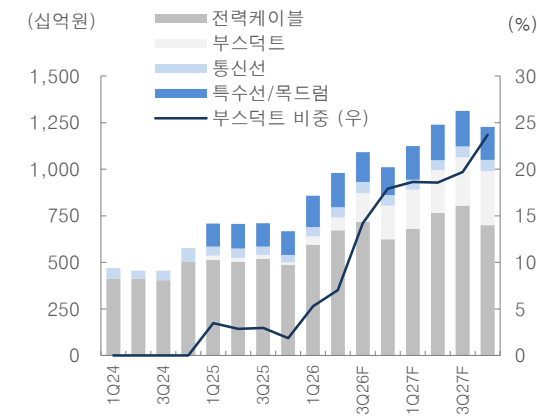
자료: 가온전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6.가온전선의 법인별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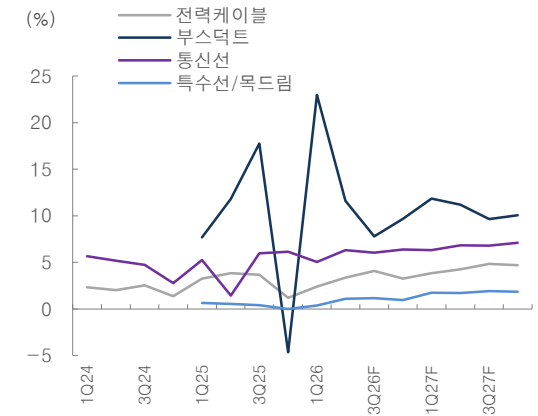
자료: 가온전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7.가온전선의 제품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가온전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8.가온전선의 제품별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자료: 가온전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727	2,546	3,539	4,436	5,245
매출원가	1,610	2,340	3,177	3,913	4,578
매출총이익	117	206	362	523	667
판매비와관리비	72	126	208	259	305
영업이익	45	79	154	264	362
영업이익률	2.6	3.1	4.3	6.0	6.9
EBITDA	55	102	182	300	402
영업외손익	-9	-16	-17	-18	-19
관계기업손익	0	0	0	0	0
금융수익	17	23	15	1	1
외환관련이익	9	13	5	5	5
금융비용	-25	-41	-34	-22	-23
외환관련손실	6	12	5	5	5
기타	-2	2	3	3	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36	63	137	247	343
법인세비용	-10	-12	-31	-54	-75
계속사업순손익	25	51	107	192	268
중단사업순손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25	51	107	192	268
당기순이익률	1.5	2.0	3.0	4.3	5.1
비배지분순이익	0	0	0	0	0
지배지분순이익	25	51	107	192	268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0	0	0	0	0
기타포괄이익	4	3	2	1	1
포괄순이익	63	79	126	206	277
비배지분포괄이익	0	0	0	0	0
지배지분포괄이익	63	79	126	206	277

Valuation 지표

(단위: 원 배,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EPS	1,802	1,787	3,580	6,463	8,987
PER	16.7	25.6	58.2	32.3	23.2
BPS	32,250	16,824	21,730	27,297	34,224
PBR	0.9	2.7	14.5	11.5	9.2
EBITDAPS	3,936	3,549	6,118	10,077	13,487
EV/EBITDA	12.0	15.6	52.9	32.3	24.3
SPS	122,766	88,529	118,838	148,987	176,140
PSR	0.2	0.5	2.6	2.1	1.8
CFPS	4,917	4,092	6,852	10,816	14,223
DPS	0	56	716	1,939	2,696

재무비율

(단위: 원 배,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15.2	47.4	39.0	25.4	18.2
영업이익 증가율	3.0	75.9	94.3	71.9	37.0
순이익 증가율	41.7	102.7	107.4	80.5	39.1
수익성					
ROC	6.4	9.6	13.7	19.1	21.5
ROA	4.9	6.5	9.9	14.1	16.5
ROE	6.5	11.0	18.9	26.4	29.2
안정성					
부채비율	129.9	184.8	166.6	150.0	132.5
순차입금비율	28.1	47.2	41.3	39.5	37.8
이자보상배율	5.2	4.4	7.5	12.1	15.7

자료: 기온전선,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유동자산	655	970	1,275	1,548	1,862
현금및현금성자산	64	197	216	186	15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357	406	565	731	974
재고자산	178	284	393	493	583
기타유동자산	55	82	101	138	153
비유동자산	388	408	450	484	507
유형자산	309	360	397	426	438
관계기업투자금	0	0	0	0	0
기타비유동자산	79	49	53	59	69
자산총계	1,043	1,378	1,725	2,032	2,369
유동부채	518	745	903	1,009	1,107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297	337	442	539	626
차입금	143	358	408	413	418
유동성채무	55	25	25	25	25
기타유동부채	23	25	28	32	38
비유동부채	71	149	175	210	243
차입금	25	94	114	144	174
전환증권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45	55	60	66	69
부채총계	589	894	1,078	1,220	1,350
자배지분	454	484	647	813	1,019
자본금	49	83	149	149	149
자본잉여금	89	8	8	8	8
이익잉여금	279	369	474	645	855
기타자본변동	36	24	17	11	8
비배지분	0	0	0	0	0
자본총계	454	484	647	813	1,019
순차입금	127	228	267	321	385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2024A-10	2025A	2026F	2027F	2028F
영업활동 현금흐름	39	42	-10	77	81
당기순이익	25	51	107	192	268
비현금항목의 가감	44	66	97	130	156
감가상각비	10	23	28	36	39
외환손익	4	0	2	2	2
지분법평가손익	0	0	0	0	0
기타	29	44	67	92	115
자산부채의 증감	-16	-62	-166	-172	-247
기타현금흐름	-14	-14	-49	-74	-96
투자활동 현금흐름	-26	-15	-75	-74	-59
투자자산	0	0	-3	-5	-10
유형자산					-10
기타	-15	7	-6	-5	3
재무활동 현금흐름	-21	109	-91	-212	-248
단기차입금	30	105	50	5	5
사채	-30	90	10	20	20
장기차입금	20	0	10	10	10
유상증자	79	204	66	0	0
현금배당	0	-12	-2	-21	-58
기타	-120	-278	-225	-225	-225
현금의 증감	-7	134	18	-30	-33
기초 현금	71	64	197	216	186
기말 현금	64	197	216	186	153
NOPLAT	32	64	119	206	283
FCF	31	62	80	176	268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허민호)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내용]

가온전선(000500)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내용

제시일자	26.09.30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360,000
과리율(평균%)	
과리율(최대/최소%)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리율(평균%)	
과리율(최대/최소%)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리율(평균%)	
과리율(최대/최소%)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리율(평균%)	
과리율(최대/최소%)	

투자의견 비율공시 및 투자등급관련사항(기준일자:20260926)

구분	Buy(매수)	Marketperform(중립)	Underperform(매도)
비율	92.7%	7.3%	0.0%

산업 투자의견

- Overweight(비중확대)
: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 상승 예상
- Neutral(중립)
: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예상
- Underweight(비중축소)
: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하회 예상

기업 투자의견

- Buy(매수)
: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주가 상승 예상
-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10%p 주가 변동 예상
-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주가 하락 예상